

동행

당신이 웃는
내일을 희망합니다



눈오는 지도地圖

/ 윤동주

순이(順伊)가 떠난다는 아침에 말 못할 마음으로 함박눈이 내려, 슬픈 것처럼 창(窓)밖에 아득히 깔린 지도(地圖) 위에 덮힌다. 방(房)안을 돌아다 보아야 아무도 없다. 벽(壁)이나 천정(天井)이 하얗다. 방(房) 안에까지 눈이 내리는 것일까, 정말 너는 잃어버린 역사(歷史)처럼 훌훌이 가는 것이냐, 떠나기 전(前)에 일러둘 말이 있던 것을 편지를 써서도 네가 가는 곳을 몰라 어느 거리, 어느 마을, 어느 지붕밑, 너는 내 마음속에만 남아 있는 것이냐, 네 쪼고만 발자욱을 눈이 자꾸 내려 덮여 따라 갈 수도 없다. 눈이 녹으면 남은 발자욱 자리마다 꽃이 피리니 꽃사이로 발자욱을 찾아 나서면 일년(一年) 열두달 하냥 내 마음에는 눈이 나리리라.

전국범죄피해자지원연합회

연합회에서는 범죄피해자가 강력 범죄로 인한 신체적·정신적·경제적 고통에서 조속히 벗어나 사회로 복귀하여 인간다운 생활을 할 수 있도록 범죄 발생 직후부터 회복할 때까지 범죄피해자를 보호·지원하는 통합업무를 시행하고 있습니다.



2017 vol.06 여섯번째호

전국범죄피해자지원연합회 간행물 <동행>
발행일 2017년 12월 31일
발행인 김갑식
발행처 전국범죄피해자지원연합회
주 소 서울시 서초구 반포로 157
전 화 02-596-1295, 02-586-1295
팩 스 02-3471-1295
홈페이지 www.kcva.or.kr
디자인·인쇄 경성문화사 02-786-2999

외부 필자의 원고는 연합회의
공식 입장과 일치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04 인사말

전국범죄피해자지원연합회 김갑식 회장 04

06 커버스토리

범죄피해자 보호·지원의 현실과 대응과제_ 김주원 변호사 06

10 BIG issue | 강도 범죄

강도 범죄에 대해 얼마나 알고 계신가요? _ 5대 강력범죄 | 강도 통계 10
강도 범죄 피해 극복 수기 12

14 희망스토리

사회적기업 이야기 | 천안아산범죄피해자지원센터 희망카페 14
카페취업지원 피해자 수기 18
희망초대석1 | 인권은 다른 사람과 함께 걷는 긴 여정입니다
_ 법무부 인권국장 황희석 20
희망초대석2 | 기부자와 수혜자가 함께 행복한 기부문화
_ 아름다운재단 기부문화연구소 전문위원 전현경 22

26 전국범죄피해자지원연합회 이야기

2017 연합회 하반기 활동 소식 26

30 전국 범죄피해자지원센터 이야기

대검 캘리 동호회 소식 30
전국 범죄피해자지원센터 활동 소식 32
법률제도 | 간병비 등 부대비용, 돌봄비용 신설 52
센터 이야기 | 연혁 54
우리센터 이야기 | 자조모임 소개 58
전국 범죄피해자지원센터 현황 62

진정성, 효율성, 개방성의 새해를 기대합니다



여러분 반갑습니다.

하루를 시작하는 의미에 차이가 있겠지만, 새해 첫날의 의미는 우리 모두에게 남다르다고 하겠 습니다.

지난 시간을 되돌아보면 내일을 알 수 있다는 뜻으로 관왕지래(觀往知來)라는 말이 있습니다.

그런 맥락에서 우리의 지난 시간을 되돌아보면서 몇가지 화두를 통해 의미 있는 새해를 맞이했 으면 합니다.

먼저 진정성입니다.

우리는 가장 오랫동안 진정성을 갖고 소중한 이웃을 위해 노력해왔다고 자부합니다.

센터 설립 초창기 열악한 여건 속에서 또 지금 이 시간까지 피해자가 좀 더 빠르게 일상으로 복 귀할 수 있도록 아픔을 같이하는 일을 숙명처럼 생각하면서 매진해 왔습니다.

이런 연료와 축적된 경험으로 범죄피해 구조금 제도의 개선 등 제도와 정책의 발전과 함께 민간 단체만이 할 수 있는 장기적이고 사후적인 피해자지원체계를 정립한 바 있습니다.

그러기에 환경과 여건이 빠르게 변화하는 현실 속에서도 우리의 가치인 피해자 지원의 본질을 찾는 진정성이 더욱 중요하고 절실한 명제일 것입니다.

다음은 효율성입니다.

피해자지원에 대한 각종 규정과 지침이 정립되어있지만, 피해자의 기대욕구와 일치하기는 어려 운 것이 현실입니다. 또한 아직까지 각종 부대업무에 종사자들이 많은 시간과 노력이 투입되고 있어 업무의 효율성의 문제도 해결해야 할 과제입니다.

업무의 우선순위 정립, 업무체계의 간소화 및 표준화 등 시대의 흐름에 부합되는 효율성 정립이 절실히 필요합니다.

끝으로 개방성입니다.

그간 범죄피해자와 그 가족들은 특수한 상황으로 인해 위축되고 폐쇄적인 환경에 처해있었던 것 이 사실입니다.

최근에는 여러 피해자가 본인이 겪었던 고통과 어려움, 그리고 이를 극복한 과정을 체험수기로 기술하기도 하고 용기 있게 공개적으로 발표하여 많은 분들에게 감동을 주고 특히 피해자와 가

족들에게 희망의 메시지를 전달한 바 있습니다.

이제는 물론 어렵지만 많은 피해자와 그 가족들이 세상 밖으로 나올 수 있는 개방적인 인식 변화 에 함께 노력해야 할 것입니다.

우리는 지난해 범죄피해자에 대한 인권과 사회적 관심 촉구를 위한 범죄피해자 인권대회 10주년 기념행사와 범죄피해자에 대한 인식개선을 위한 “다링”(DaRing) 공익 캠페인 네 번째 행사를 통 해 피해자를 생각하고 지난 시간을 되돌아보며 내일을 구상하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특히 새해는 전국범죄피해자지원연합회가 설립된 지 10주년을 맞는 해로서 새로운 변화와 함께 전환의 계기를 마련해야 할 것으로 생각합니다.

피해자를 위한 진정성, 피해자지원의 효율성, 피해자의 새로운 변화인 개방성이 함께 모여 보람 을 찾고 우리 주변에 격려와 배려가 샘솟는 행복한 새해를 기대합니다.

한 해 동안 격려해주시고 성원해주셨던 많은 분들이 새해에도 피해자와 가족과 함께 웃을 수 있 게 되기를 희망합니다.

감사합니다.

김갑식 회장

전국범죄피해자지원연합회

message

범죄피해자 보호·지원의 현실과 대응과제



우리는 범죄피해자 보호·지원을 왜 하고 있는 것일까?

“우리는 범죄피해자 보호·지원을 왜 하고 있는 것일까?” 이 말은 아주 기본적인 질문이라고 할 수 있지만, 이에 대한 답은 범죄피해자가 다름 아닌 우리 자신을 포함한 가족일 수도 있고 이웃일 수도 있기 때문에 피해를 당한 사람들이 가해자 이상으로 보호되어야 하고, 그래야만 공동체가 건강하고 온전하게 유지될 수 있기 때문이라고 할 수 있을 것입니다.

범죄피해자는 범죄피해를 당한 사람들로서 사건의 실질적 당사자이며 형사사법절차상 2차 피해를 당할 수도 있다는 점에서 단순한 입증방법으로 보는 것은 타당하지 않습니다. 따라서 범죄피해자는 형사사법절차의 핵심 당사자로서 대우받아야 하며, 피의자 이상으로 실체적·절차적 권리를 보장받아야 합니다.

우리 <헌법> 제27조 5항에는 형사피해자는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당해 사건의 재판절차에서 진술할 수 있고, 제30조에는 타인의 범죄행위로 인하여 생명·신체에 대한 피해를 받은 국민은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국가로부터 구조를 받을 수 있다고 선언하고 있습니다. 그에 따라 범죄피해자 보호·지원의 기본법이라고 할 수 있는 <범죄피해자보호법>이 제정되었고, 이어서 <특정범죄신고자 등 보호법>, <성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아동복지법>, <가정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아동학대범죄

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범죄피해자보호기금법> 등이 제정되었으며, 그에 따른 후속 세부지침 등도 마련되어 입법적인 정비가 점차 고도화 되어 가고 있습니다. 구체적으로 이러한 입법적 성과를 뒷받침할 수 있는 각 부처의 기구나 지원단체도 지원대상별로 다양하게 마련되어 왕성한 활동을 하고 있고, 관련 예산 등 재원도 충분하지는 않지만 매년 증액되고 있습니다.

구체적으로, 2017년 법무부의 범죄피해자 지원 예산이 범죄피해구조금 및 경제적지원금, 신변보호 등의 분야에서 190억 9,600만 원에 이를 정도로 커졌고, 지원분야도 다양해 보입니다.

지원제도를 일별해 보더라도 형사절차상으로 피해자에 대한 권리고지, 형사절차 관련 통지, 신뢰관계자 동석, 진술조력인 제도, 피해자 국선변호제, 재판절차 진술권, 기록 열람 등사권, 친권상실 청구 또는 후견인 변경결정 청구요청 등 많은 진보를 이루었습니다.

경제적 지원분야에서도 범죄피해구조금 확대, 주거 지원, 치료비 지원, 스마일센터 증설 등을 통한 심리치료, 범죄피해자지원센터 지원비 점진적 확대 등을 이루었습니다.

아울러 신변보호 제도로서 가명조서 및 신원관리카드제, 이전비, 위치확인장치 지급, 수사기관 및 법정동행, 피해자보호시설 운영, 특정범죄 신고자 등 신변보호 대상자 구조금 등의 제도를 시행하



김주원
법률사무소 온세
대표변호사

고 있고, 그 외에도 피해회복을 위해서 형사조정, 배상명령 등의 제도를 활성화하고 있으며, 범죄피해자들의 피해상황을 수사 및 재판 양형에 반영하는 제도를 시행하는 등 많은 성장을 이루었다고 할 수 있습니다.

범죄피해자 보호·지원의 현실

이와 같은 범죄피해자 지원제도의 양적, 질적 성장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강력범죄는 한해 30여만 건에 이를 정도로 기승을 부리고 있고, 그에 반해 이러한 강력범죄에 대응한 범죄피해자 지원비율은 매년 조금씩 증가하고 있기는 하나 대체로 강력범죄 발생건수 대비 24% 내외 수준에 머물러 있는 형편입니다. 그로 인해 범죄피해로 신음하고 고통받는 피해자가 여전히 많고, 그러한 피해자가 받는 고통은 본인 뿐만 아니라 가족도 부담하고 있는 상황이며, 그들의 외상후스트레스장애(PTSD) 등 정신적 스트레스는 심각한 정도에 이르

러 경제적·사회적 장애 상태를 가져오고 있습니다. 이는 또다시 개인과 가정의 붕괴 등으로까지 이어져 피해자들에게 극단적 선택이나 절망과 복수심을 유발해 새로운 범죄를 일으키게 하는 악순환의 고리를 이루는 문제점이 있다고 할 수 있습니다. 현재 시행 중인 경제적 지원도 치료비나 구조금 지급 등 일회적·대응적 성격이 주를 이루고 있어, 범죄피해로 인해 일자리를 잃고 사회적·경제적 한계상황에 내몰린 피해자에 대한 소득창출 및 일자리 제공 등 지속적·급부적 사회복지 활동을 충족하기에는 여전히 미흡한 것으로 보입니다. 최근 일부 범죄피해자지원센터에서 사회적 기업을 운영하고 있기는 하나, 아직 초보단계에 머물러 있어 여전히 근본적 대책이 시급한 실정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아울러 민간분야에서 종합적인 범죄피해자지원 기구의 선도적 역할을 하는 범죄피해자지원센터의 재원이 만성적으로 부족할 뿐만 아니라 그 재원 조달 구조도 여전히 센터 임원들의 개별 기부금 비율이 27%에 이르는 등 취약한 실정이고, 일부 경제적 지원의 경우 민간기구와 정부간의 역할분담이 효율적이지 못한 부분도 엿보입니다.

아울러 센터 종사자의 근무여건도 10여 년전 최초 개설 당시의 상근인력 2.3명 수준에서 더 개선된 것이 별로 없어 내실있는 피해자 지원이 쉽지 않은 상황에

놓여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그리하여 범죄피해자지원센터의 역할과 기능이 정부의 보조적 지원기구 이상으로 발전해 나가지 못하는 아쉬움도 여전해 보입니다. 게다가 부처별로 범죄피해자 지원 기구가 다양하고 그들간에 영역 경쟁을 하는 측면도 적지 아니하며, 종합적인 컨트롤 기능 부재로 통합적 피해자 지원 기능도 비효율적인 부분이 적지 않아 예산의 중복 등 낭비적 요소도 여전히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또한 범죄피해자가 갖고 있는 특수성, 폐쇄성 등과 아울러 대국민 홍보부족 등이 겹쳐 피해자의 고통과 어려움 등 여건에 대한 관심 부족 현상이 사회에 여전히 만연하고 있습니다.

그 외에도 이전부터 독자적인 범죄피해자 지원조직을 갖고 싶어하는 경찰과의 긴밀한 관계설정도 여전히 숙제로 남아 있는 상황이고, 피해자들의 자발적인 권익단체인 자조모임의 단결권도 아직 미흡한 상황으로 보입니다. 다음에서는 이러한 상황을 어떻게 효과적으로 해소하고, 더 촘촘한 범죄피해자 보호·지원을 이루어 낼 수 있을지에 대하여 검토해 보기로 하겠습니다.

향후 대응방안

범죄피해 회복을 위해 국가와 지자체, 민간단체 등이 각자 나름대로의 강점을 살려 해당분야에서 서로 협의해 가면서 때로는 경쟁도 하면서 함께 나아가는 모

습은 우리 사회가 피해자의 인권을 존중하는 방향으로 방향전환을 하여 새롭게 각성하는 자세로 보여 매우 바람직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보다 효과적이고 실제적인 피해회복을 위해서는 국가나 지자체, 유관민간단체 등이 모두 그 역할을 적절히 나누어서 각자의 영역에서 자신들의 강점을 최대한 발휘하는 것이 좋다고 봅니다. 그런 의미에서 규모가 큰 구조금 지급제도 개선이나 범죄피해자 지원기금 증액, 지원기구 설립, 운영 등의 지원 인프라 구축은 국가나 지자체가 나서는 것이 더 효율적일 것으로 생각되고, 개별 피해자에 대한 상담이나 치료비, 심리치료 등 소프트웨어적 지원은 접근성이나 친근성, 전문성, 지속성 등의 면에서 민간단체 등에서 맡는 것이 보다 효율적일 수 있습니다.

따라서 <범죄피해자보호법>에 그 설립 근거를 갖고 있는 민간영역의 범죄피해자지원의 중추라고 할 수 있는 범죄피해자지원센터의 역할과 기능을 계속 강화하고, 그들의 재정지원 및 전문상담가 채용 등 인력 지원도 지속적으로 늘려가야 할 것입니다.

그리하여 민간의 자발적이고 창의적이며 다종다양한 지원 아이디어가 샘솟듯이 계속 솟아날 수 있도록 그 지원을 아끼지 말아야 할 것입니다. 범죄피해자지원센터가 검찰청내에 존치하고 있는 실질적 배경이 검찰청의 관변단체라서가

아니라 고정성 경비를 절약하여 그 예산이 피해자들에게 실질적으로 돌아갈수 있게 하려는 데 있음을 인식하여, 경찰 등 유관기관, 단체들도 범죄피해자지원센터를 적극 활용함으로써 피해자에게 더 도움이 되게 하여야 할 것입니다.

한편, 범죄피해 회복은 초기에 개입할수록 그 효과성이 높은 것이 대체적인 현실이고, 해당 피해자에게 적합한 맞춤형으로 설계하여 유관기관, 단체들이 모두 참여하는 형태로 개입하는 것이 효용성이 뛰어나다고 할 수 있습니다.

이를 위해서는 개별 사안별로 그 효용성을 따져 국가나 지자체가 나서는 것이 더 좋은지, 혹은 민간단체가 나서는 것이 더 나은지, 아니면 유관 기관·단체들이 모두 참여하여 맞춤형으로 나서는 것이 좋은지를 신속히 판단하여 기동성있게 지원되도록 할 필요가 있습니다.

최근 통합지원 네트워크를 통한 피해자지원의 경우, 가해자가 피해자로부터 만남을 거절당하자 휘발유가 든 페트병으로 가옥을 태워 피해자 언니가 사망하고 피해자 본인과 모친이 중화상을 입은 사안에서 검찰은 신속한 구조금 지원 신청 및 결정, 화상전문병원인 한진병원은 치료비 협조, 현장정리업체에서는 말끔한 사건현장 정리 및 청소, 관할 구청은 피해자 기초생활수급자 신청 및 결정, KBS는 사랑의 리퀘스트라는 프로그램을 통해 3,000만 원 후원금 모금 지원, 연합회와 센터에서는 생계비, 치료

비, 장례비 등 2,100만원을 지원하는 등 피해자들에게 꼭 필요한 맞춤형, 통합적 지원을 실시함으로써 개별 기관이나 단체로서는 도저히 감당할 수 없는 입체적, 종합적 지원을 하였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 외에도 피해자들이 형사사건의 당사자로서 당당하게 절차에 참여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를 더욱 확충, 보완하여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피해자들이 2차적 피해를 당하지 않도록 그들의 신상이나 개인정보, 피해 사실들이 드러나지 않도록 보호할 필요가 있을 뿐만 아니라 가해자들의 보복피해를 당하지 않도록 신변보호 장치도 더욱 강화되어야 합니다.

이러한 제도적 보완 장치는 결국 국가나 해당 정부부처 및 지자체, 관련 기관, 단체 등의 입법이나 조례, 예규, 지침 등의 제·개정 조치를 통해서 마련되어야 하므로, 이러한 조

치도 신속히 이행될 수 있도록 지속적인 노력을 하여야 할 것입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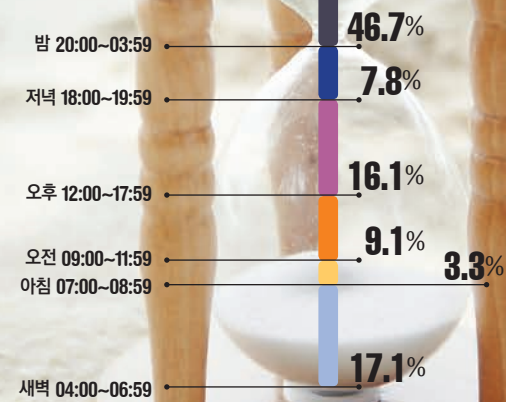
아울러 이러한 범죄피해자 지원 사업의 추진상황과 실적, 우수사례, 그들의 반응 등을 국민들에게 지속적으로 홍보하여 관련 예산과 인력 지원, 국민들의 후원 등이 지속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여야 할 것이라고 생각하면서 여러가지 문제들이 조금씩 해결되기를 기대해 봅니다. 🌈



강도범죄에 대해 얼마나 알고 계신가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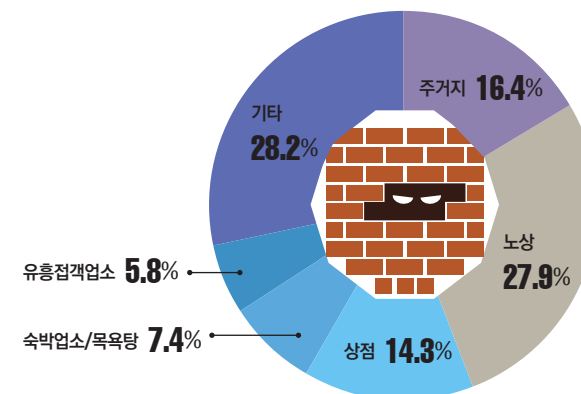
자료출처 : 2015 <범죄백서>-대검찰청

강도범죄의 범행발생시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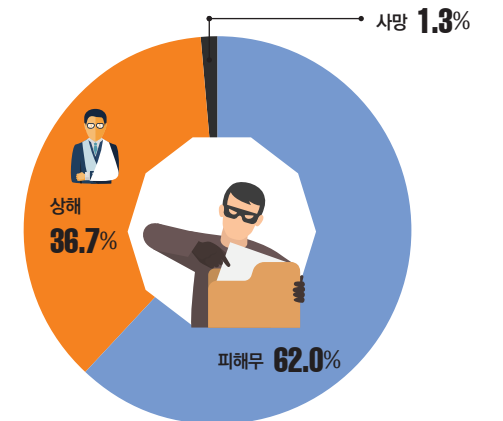
5대 강력 범죄【강도】

강도범죄의 범행발생장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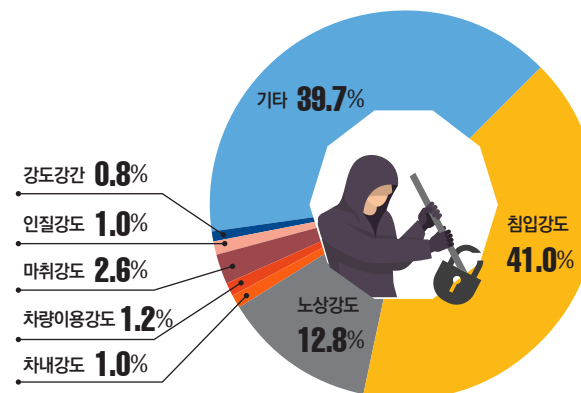
강도범죄는 기타를 제외하면, 노상에서 발생하는 경우가 27.9%로 가장 많았고, 그 다음으로는 주거지 16.4%, 상점 14.3%, 숙박업소/목욕탕 7.4% 등의 순이었다.

강도범죄의 신체피해정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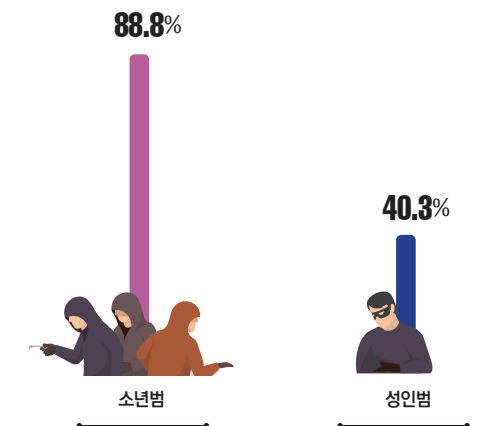
강도범죄로 인한 신체피해정도 중에서 상해피해를 입은 경우는 36.7%인 것으로 나타났고 강도범죄로 피해자가 사망한 경우는 19건으로 1.3%였다.

강도범죄의 범행수법



범행수법별로는 침입강도가 41.0%로 가장 많았고, 그 다음이 기타 39.7%, 노상강도 12.8%의 순이었다. 마취강도와 차량이용강도는 각각 2.6%와 1.2%로 낮은 비율을 차지하였고, 인질강도와 강도강간은 각각 1.0%와 0.8%였다.

강도범죄자의 연령별 공범 비율



강도범죄의 51.0%가 공범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는데 성인 범죄자의 경우 40.3%가 공범이 있는 반면, 소년 범죄자의 경우는 88.8%가 공범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소년 범죄자들의 집단화 경향을 보여준다.

강도 피해자 가족 수기

글_ 피해자 박은희(가명)
영동육천 센터



안녕하세요.

저는 우리 남편이 겪은 이야기를 하려고 합니다.

9년 전 어느 날 새벽. 고요했던 거실에서 갑자기 전화벨이 울려 퍼졌습니다.

저는 평소처럼 아무 생각 없이 전화를 받았는데 수화기 너머 어떤 남자의 신음소리가 들렸습니다. 조금 무섭기도 했지만 웬지 낯설지 않은 목소리처럼 들려 주의 깊게 들어보니 바로 저희 남편의 목소리였습니다. 남편은 1층으로 빨리 내려와 달라는 말만 겨우 하고 수화기를 내려놓았습니다. 남편의 그런 목소리에 놀란 저는 황급히 뛰어 내려갔습니다.

남편은 차디찬 바닥에 누운 채 한 발자국도 움직이지 못하는 상태였으며, 그 옆에는 골리앗같이 덩치 큰 한 청년이 옆에 서 있었습니다. 그리고 잠시 후 경찰차가 도착하였습니다. 저희 가족은 사건 당시 모텔을 운영하고 있었습니다. 새벽에는 보통 남편 혼자 가게를 보는데, 그날 새벽 도둑이 들었던 것입니다. 그 도둑을 잡으려고 남편이 실랑이를 벌이다가 그만 남편이 크게 다치게 되었던 것입니다.

저는 바닥에 누워있는 남편을 본 순간, 그저 남편이 살아 있음에 감사했습니다.

비록 그 청년 때문에 남편이 이렇게 다쳤지만, 아이들에게 또 저에게는 살아있다는 것만으로도 감사한 일이었으니까요.

사건이 있는 뒤, 골리앗 같은 청년의 사정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 청년의 엄마는 청주교도소에서 무기징역형을 받고 복역을 하고 있었으며, 유년시절을 할머니와 함께 생활하고 할머니가 돌아가신 후에 소년원을 여러 차례 다녀오고, 교도소를 왔다 갔다 하면서 자랐다고 했습니다. 청년의 어려웠던 가정 형편을 듣고 나니 저는 청년이 조금은 안쓰러운 마음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청년이 수감된 유치장에 가서 우유 등 먹을 것을 넣어주고 영치금도 두어 번 넣어 주었습니다.

그런데 그다음부터 청년에게 계속 ‘누님, 누님’ 하면서 편지가 날아왔습니다. 편지에는 영치금을 더 넣어달라는 이야기가 적혀있었습니다. 처음에는 대수롭지 않게 생각해서 무시해 버렸습니다. 그렇게 몇 차례 계속 무시를 하자 청년이 저희 가족이 다니는 교회로 협박성 편지를 보내왔습니다. 이런 상황을 경찰에게 얘기하자, 이러한 상황에 놓인 가해자들의 대부분은 피해자에게 꼭 찾아가 복수를 하는 것이 특징이라고 말했습니다. 그 말을 듣는 순간부터 두려운 마음에 잠을 이룰 수가 없었습니다.

5대 강력 범죄【강도】

남편과 저에겐 눈에 넣어도 안 아픈 8살 된 딸 아이와 11살 된 아들이 있었습니다.

청년이 출소되면 우리 아이들에게 해코지를 할까 봐 걱정이 되었습니다. 또한 남편이 치료 중으로 제가 가게를 보고 있어 아이들을 챙길 수 있는 상황이 되지 않고 혼자 가게를 운영하고 있어 경제적, 심리적으로 지치고 힘들었습니다. 여러 가지로 힘들어서 모든 걸 정리하고 인근 시골로 들어왔습니다. 남편은 불편한 다리를 움직이면서도 닭을 키우는 일을 하였고, 저는 식당에서 일을 하면서 두 아이들을 키우며 생활을 이어 갔습니다.

그 후 몇 년이 지나 지역신문에서 범죄피해자지원센터 안내문을 보게 되었습니다. 우리 부부는 혹시나 하는 마음에 피해자지원센터에 연락을 해보았습니다.

센터에서는 우선으로 사건에 대한 피해 사실 확인과 가해자와의 합의 여부 등을 확인하고 센터에 방문하여 상담을 받아보길 권유해 주셨습니다. 그후 남편과 저는 설레는 마음으로 센터의 문을 두드렸습니다.

이후 피해자지원센터에서는 저희 가족에게 치료비 지원, 자녀 학자금 지원, 그리고 저희가 경제적 어려움에 처해 있을 때마다 저희 자녀들을 장학회 장학생으로 추천하여 많은 경제적 도움을 받았습니다.

남편의 사고 이후 우리 가족에는 절망만이 자리 잡고 있었다고 생각했는데, 지원센터를 만나면서 우리 가족에게도 희망의 씨앗이 생긴 것 같아 기뻐했습니다.

몇 년 전 처음으로 딸과 함께 대전 바닷가에서의 추억을 만들고 마음껏 소리 내어 웃어도 볼 수 있었습니다. 겨울 방학이면 저희 아이들은 스키 캠프만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곳에서 만난 선생님과 친구들, 또 함께 나눴던 추억으로 새로운 희망을 꿈꾼다고 합니다.

올가을 남편의 인공관절 수술이 시급하다는 진단을 받았습니다. 상해로 인하여 수술할 부위의 피사가 진행되고 있다고 몇 해 전부터 수술을 하라고 권유하셨지만 경제적 여건이 좋지 못하여 수술을 미뤘습니다. 계속 미루다가 멀쩡하

던 남편의 치아가 5개나 빠지게 되어 다시 병원을 찾았습니다. 병원에서는 인공관절 수술을 계속 미루게 되면 앞으로 있는 치아도 다 빠질 수가 있을 수 있다는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 후로 지자체 등 수술비 지원에 대하여 문의하였지만 신청 자격이 되지 못한다고 연락을 받았습니다. 더 악화되고 있는 남편의 피사와 그에 대한 합병증 때문에 더 이상 남편의 수술을 미룰 수가 없어 인공관절 수술을 받기로 했습니다. 수술 날짜를 잡아 놓고서도 남편은 수술비 걱정 때문에 마음을 놓지 못하였습니다. 가장으로서 저와 자녀들에게 무능한 아빠인 것 같아 항상 미안해 하곤 했습니다. 그런 남편을 바라볼 때마다 저는 가슴이 아팠습니다. 우리가 잘못된 것이 아닌 다른 사람의 잘못으로 우리 가족이 피해를 보고 있다는 생각에 화가 치밀어 올랐습니다. 그럴 때마다 그래도 우리 곁에서 이렇게 살아 함께 마주할 수 있는 남편이 있다는 것에 감사하게 생각하자고 우리 가족은 다짐하며 마음을 굳게 먹었습니다.

남편이 인공 관절 수술을 받았던 날, 범죄피해자지원센터에서 어떻게 아셨는지 남편의 수술 소식을 듣고 연락을 주셨습니다. 제가 남편의 수술비 때문에 걱정하자 지원센터에서는 센터에서 지원방안을 모색해 보겠다는 말씀과 함께 치료비 걱정은 하지 말고 지금은 남편의 회복이 잘 될 수 있도록 가족이 함께 노력해 달라고 이야기해주셨습니다. 이후 지원센터는 남편에게 인공관절 수술비와 재활치료비를 지원해 주셨으며 우리 가족을 잊지 않고 스마일 공익신탁 기금까지 받을 수 있도록 또다시 도움의 손길을 내어주었습니다. 현재 남편은 잘 걸을 수 있게 되어 새로운 일도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저희 가족에 “희망의 씨앗”이 되어주신 범죄피해자지원센터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저희 가족은 말합니다. 우리가 여러분들에게 채움의 사랑을 나눠 받았으니 가족 모두 각자 주어진 위치에서 열심히 살아서 나눔의 사랑을 실천하며 함께 살아가자고 다짐하며 웃음꽃을 피웁니다. 감사합니다. 🌸

천안아산범죄피해자지원센터
사회적기업

희망카페

Nope cafe

Q 그간 여러 센터에서 피해자와 가족들의 실질적 치유와 회복을 위해 또한 자립 기반을 마련하기 위해 범죄피해자를 위한 사회적기업 설립을 구상했지만 설립 및 운영에 많은 어려움이 예상되어 아직까지는 활성화가 미흡한 실정입니다. 이런 어려움을 예상하면서 천안아산센터에서 금번 희망카페를 개소하게 된 특별한 동기나 배경은 어디에 있는지요?

A 그간 대전센터, 서울서부센터, 광주센터, 홍성센터에서 “희망카페”를 운영하는 과정을 지켜보면서 보람도 있지만 현실적으로 어려움이 많은 것을 알 수 있었습니다.

저희 센터의 입주 여건상 수요인원이 150여 명 밖에 되지 않아서 당연히 운영에 어려움이 있겠지만 금번 신청사 입주에 따른 새로운 기회이고, “피해자의 자립을 위해 일자리를 확실히 만든다”는 자부심으로 어렵게 준비하여 개소하게 되었습니다.

Q 바쁜 연말, 새로운 청사 이전과 함께 센터 업무만으로도 많이 바쁘셨을텐데 사회적기업 희망카페 준비로 몹시 분주하셨을 것 같네요. 그간 많은 노력 끝에 카페를 오픈하셨는데 소감이 어떠신지요?



A 새로운 청사를 지으면서 담당하는 모든 사람들이 처음이라서 “희망카페”를 배치하는 장소 및 규모 등에 대하여 잘 몰라 애로사항이 많았습니다. 후에 3평 정도를 더 확장하고, 전기공사도 대폭 증설하여 경비도 추가로 더 들었습니다. 아직은 잘 모르겠으나 150여명 각각 다른 업무를 하고 있는 직원들과 “희망카페”를 통해서 많이 가까워지는 것 같아 의미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주변에서 가격대비 커피 맛이 좋다고 소문이 나서 향후 점진적으로 흑자 운영이 되기를 기대하고 있습니다.



Q 현재 카페에서 근무하시는 구성원은 어떻게 되시지요? 근무하시는 분의 근무형태나 판매품목 등도 궁금합니다.

A 현재는 피해자가족 1명이 근무하고(08:00~18:30) 있으며, 초창기라 점심시간, 오후 등 바쁠 때 센터 직원들도 직접 카페 업무에 참여하고 있습니다. 품목은 현재 차, 음료 등 다양한 품목으로 30여 가지를 준비하고 있고 평균 2,500원 ~ 3,500원 선으로 판매하고 있습니다.

Q 이번 천안아산센터의 사회적기업인 희망카페를 끝으로 현재 전국 센터의 사회적기업 인터뷰가 마무리 됩니다. 향후 센터에서 사회적기업 설립에 대해 계획을 갖고 있거나 준비하기 위해서는 어떤 면에 중점을 두고 추진해야 하는지 그 방법과 노하우에 대해서 좀 알려주세요.

A 현재 17,5평 규모에 인테리어비, 기계구입비, 재료비 등 5,500만 원이 투자되었는데, 문제는 앞으로 지속적인 인건비, 관리비 등 현상유지가 관건입니다.



다. 설립하기 전에 정확한 수요인원을 파악하여 수익성을 최대한 정확하게 따져 보고 계획을 세워야 될 것 같습니다.

Q 앞으로 천안아산센터의 희망카페에서 발생하는 수익금에 대해서는 어떻게 활용하실 예정이신지요?

A 임시 이사회를 개최하여 금번 제반사항에 대해 “희망카페 운영규정”을 제정하였습니다. 수익금은 전액 피해자 지원을 위하여 사용하기로 했습니다.

Q 앞서 타 센터 사회적기업들의 사례들에 대해서 많이 보고 들으셨을 것으로 생각되는데요, 어느 곳이나 그렇듯 초창기에는 운영하는데 크고 작은 어려움이 많이 있다고 들었습니다. 카페를 운영하시면서 구성원들끼리 의견이 맞지 않거나 이해관계가 달라 어려움이 있을 수도 있고요. 앞으로 희망카페를 운영하시면서 발생하는 크고 작은 어려움들에 대해 어떻게 효율적으로 대처해 나가실 생각이신지요?

A 초창기 운영에 어려움이 많다는 얘기들을 들어왔고, 개소 후 몇 달은 부득이 여건상 적자가 예상된다는 얘기도 알고 있습니다. 구성원들끼리 소소하게 의견이 다를 수도 있어 운영에 차질이 예상된다고도 합니다. 관계자와 구성원들 의견을 종합해서 매사 꼼꼼하게 체크하고 어려움을 이겨낼 수 있도록 열정을 다할 생각입니다.



Q 희망카페 개소를 앞두고 센터 운영도 하시면서 바쁘신 와중에 준비를 하셨다고 들었습니다. 준비과정에 있어 어려운 점이 더 많으셨겠지만 특별히 보람되고 행복하셨던 기억이나 특히 개소를 하는 과정에서 도움을 주셨던 분들의 이야기가 듣고 싶습니다.

A 이제 개소한지 얼마되지 않아 보람된 일들은 아직 많지는 않지만 앞에서도 말씀드렸듯이 청사 내부 다양한 구성원과 센터가 조금 더 가까워지는 것 같아 반갑고, 센터 위원님들하고도 피해자 일자리 만들기에 함께 관심을 가지면서 긍정적인 공감대가 넓어지는 것 같습니다. 이 자리를 빌어서 3개소에 카페를 운영하고 있는 대전센터의 조언과 격려에 감사드립니다. 저희 희망카페 설립 과정에서 많은 지도와 세세한 협조를 받았습니다. 그간의 배려에 흑자경영으로 보답을 드리고 싶습니다.

Q 현재 희망카페에서 함께 일하고 계시는 구성원 중에서 혹시 피해자 혹은 피해자 가족이 계시다면 조심스럽지만 그 이야기에 대해서 듣고 싶는데 들려주실 수 있으신지요? 아울러 앞으로 희망카페의 일원으로 함께 할 그 분께 한마디 해주시면 어떨까요?

A 카페에서 일하시는 분은 가장이 특수상해 피해를 입어서 장기간 치료 중에 있습니다. 그동안 정신적, 경

제적 어려움이 많았지만 이제 안정된 일자리도 찾았으니 힘을 내서 열심히 노력하여 피해의 아픔을 하루 빨리 잊고 원상회복이 되길 기대하고 기원합니다.

Q 천안아산센터 이외에도 사회적기업을 운영하고 있는 타 센터나 사회적기업 운영자분들, 그리고 지금 이 시간에도 피해자와 가족을 위해 함께 웃을 수 있기를 희망하며 열심히 각자의 자리에서 노력하고 계신 센터 종사자 여러분께 새해를 맞는 덕담이나 사랑과 희망의 메시지를 전달 부탁드리겠습니다.

A 전국 센터 가족 여러분! 피해자 지원업무와 각종 행사에 몰두하다 보니 어느새 새해를 맞이했습니다! 오늘도 각 센터에서 어렵고 중요한 일을 하고 계신 종사자 여러분들과 또 본연의 업무 외에 사회적기업을 열심히 운영하시는 분들에게 사랑과 경의를 보냅니다. 우리 모두 지난 시간의 노고를 함께 위로하고 격려했으면 합니다.

새해엔 조금 더 업무에서 마음에 여유를 갖고, 전국 센터 직원 간에 소통하고 공감하면서, 피해자 지원을 통한 우리만의 보람과 긍지로 항상 건강하시고, 많이 웃는 새해가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그간의 관심과 격려에 깊이 감사드립니다. ➡

김 혜 선

포기하지 말고
힘내요!



안녕하세요.

저는 2016년 7월 27일 가해자에게 일방적 폭행을 당한 피해자의 아내 김혜선입니다.

저는 대학을 졸업하고 남편과 결혼한 후 세 명의 아이들을 낳아 키우면서 단란하고 화목한 가정을 이루고 부족함없이 지내고 있었습니다. 일이 끝나면 곧바로 집으로 돌아와 주는 남편과 잘 자라 준 우리 아들딸들…….



당연하게 여겨 왔던 그 일상이 행복이었다는 걸 이제야 깨닫고 있습니다. 든든한 버팀목이던 남편은 범죄 피해를 당해 일상생활을 할 수 없을 정도로 뇌를 많이 다쳤고, 그와 함께 평온하던 저희 가정의 일상도 산산이 깨졌습니다.

남편은 사소한 말다툼으로 인해 야구방망이로 머리를 맞았고 차량이 파손되는 사건이 일어난 지 거의 2년이 되어 가는 현재까지도 병원에 입원해 있는 상태입니다. 지금껏 집에서 살림만 하던 저는 남편이 이런 말도 안 되는 사건의 피해자가 되었다는 충격과 함께 경제적인 문제에 대한 막막함에 하늘이 무너지는 심정이었습니다. 남편의 병원비와 세 아이들을 책임지려면 당장이라도 일을 해서 돈을 벌어야 하는데 마음은 어지럽고 무엇부터 해야 할지 알 수 없었습니다. 그런 고통 속에서 빠져나오지 못하고 하루하루를 혼자서 힘들어하고 있을 때 남편이 다니고 있던 회사 동료분이 저에게 범죄피해자지원센터를 안내해 주었고, 이후 저는 조금이라도 도움을 받기 위해 센터 사무실에 찾아가게 되었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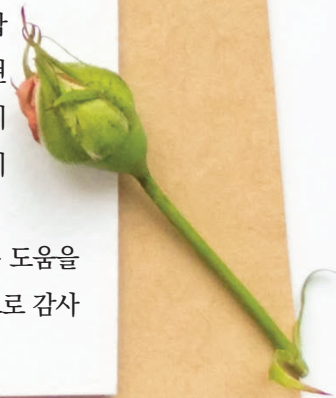
범죄피해자지원센터 직원분들은 충격을 받고 찾아간 저에게 꾸준한 상담과 심리치료를 지원해 주셨으며 앞으로의 길을 잘 개척해 나갈 수 있도록 많은 지원과 격려를 해주셨습니다.

저는 병원비와 생계비, 취업지원비 등의 지원을 받으며 1년 동안 자격증 취득에 몰두할 수 있었고, 그 결과 어려움 속에서도 간호조무사 자격증과 바리스타 자격증을 취득했습니다.

그리고 센터의 도움으로 저는 이번에 새롭게 문을 연 범죄피해자지원센터에서 운영하고 있는 희망카페에서 일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동안 사회 경험도 없이 오로지 남편을 내조하고 아이들을 뒷바라지 하면서 살아온 저로서는 일을 한다는 것이 두렵고 낯설기도 했지만 막상 일을 시작하고 나니 이제는 꿈과 희망이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대수롭지 않게 여겼던 가족들과의 평범했던 시간이 얼마나 소중한지도 새삼 느끼고 있습니다.

비록 남편은 아직도 병원에서 투병 중에 있지만 저 혼자 힘으로 저희 가족을 지키고 있다는 것이 자랑스럽습니다. 카페 일을 마치고 시간의 여유가 있는 날에는 남편이 입원해 있는 병원에 방문해서 하루 일과를 남편에게 이야기 해주면서 남편과 함께했던 추억들을 떠올려보기도 합니다. 남편이 피해를 당하기 전 우리 가족은 주말이면 모두가 함께 여행을 다니곤 했는데 현재는 제가 아이들을 데리고 다니면서 남편의 빈자리를 채워주고 있습니다. 이제는 남편이 예전의 모습으로 회복되어서 집으로 돌아올 수 있을 거라고 믿으며, 저는 앞으로 더 열심히 일하면서 아이들과 함께 제 자리를 지키면서 살겠습니다.

새해에는 우리 가족에게도 희망이 찾아올 것이라는 기대를 해보면서 그동안 저에게 많은 도움을 주신 범죄피해자지원센터 이사장님과 임원님, 사무처장님, 두 주임님과 법무관님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



“인권은 다른 사람과 함께 걷는 긴 여정입니다”



황희석
법무부 인권국장

‘동행’의 여섯 번째 간행을 진심으로 축하합니다.

전국범죄피해자지원연합회가 발간하는 이 간행물은 연합회와 범죄피해자지원센터의 활동 소식은 물론이고 경제적·법률적 지원과 심리 치료를 필요로 하는 범죄피해자들에게 요긴한 정보를 담고 있습니다.

맨 처음 이 책자의 기고 요청을 받았을 때 누가 ‘동행’이라는 이름을 지었는지 자못 궁금하였습니다. ‘동행’이라는 이름이 이 책자의 내용이나 성격에 딱 들어맞는다는 생각이 들었기 때문입니다. 모름지기 인권이란 나와 다른 사람을 함께 먼 길을 걸어가는 동반자로 받아들이는 데서 출발합니다. 범죄로 인해 고통을 당한 것도 모자라 혼자 내버려진 느낌을 받을 피해자들만큼 우리 사회에서 누군가가 손 내밀어 일으켜 세우고 함께 걸어가는 사람이 필요한 경우도 많지 않을 것입니다. 이 책

자가 꼭 그 이름처럼 범죄피해자들과 함께 걸어가는 든든한 친구가 되어줄 것을 기대합니다.

2017년 올해는 시민들이 밝힌 촛불이 큰 줄기의 빛이 되어 새 정부를 수립한 해입니다. ‘국민 인권을 우선하는 민주주의의 회복과 강화’를 국정과제로 삼은 새 정부는 국정과제를 달성하기 위한 실천과제의 하나로 ‘범죄피해자 보호 및 지원 강화’를 설정하였습니다. 범죄피해자 보호와 지원 분야에서 올해가 더욱 의미가 있는 것은 단지 위와 같은 국정과제나 실천과제 때문만은 아닙니다. 올해는 범죄피해자 지원과 보호 분야에서 굵직굵직한 진전이 있었습니다.

우선 「범죄피해자 보호법 시행령」을 개정하여 장해구조금 지급 확대, 정신질환 피해자에 대한 지급 요건 완화, 구조금의 긴급지급 범위 확대 등 범죄피해 구조금 제도를 개선하였습니다. 또, 입원 피해자들의 피해회복을 위하여 지급되어 오던 간병비와 요양병원 입원 치료비 지원 금액의 한도를 확대하여 장기치료로 인한 경제적 부담을 완화하고, 13세 미만의 강력범죄 피해자나 피해자의 13세 미만 자녀에 대한 돌봄비용 지원 제도를 신설하였습니다.

범죄피해자의 눈물과 한숨에 함께 아파하고 공감해 온 범죄피해자지원센터 종사자 여러분들 모두가 함께 애써주신 산물입니다.

지난 11월에는 범죄피해자의 보호·지원에 대한 결의를 다짐하기 위한 행사인 ‘한국범죄피해자 인권대회’도 성황리에 마쳤습니다. 지난 2008년에 시작하여 올해로 꼭 10년째를 맞은 이번 대회에 전국 각지에서 범죄피해자 지원업무에 종사하시는 많은 분들이 참석하여 자리를 빛내주셨고 피해 극복 수기 발

표를 비롯한 다채로운 구성을 통하여 피해자 지원의 의미를 되새기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지난 10월 범죄피해자지원연합회와 에스원이 함께 주최한 ‘다림’대회도 있을 수 없는 행사입니다. 범죄피해자는 물론이고 그 가족들과 자녀들이 모두 함께 어울려 범죄피해자를 생각하며 어린이대공원 산책길을 걷는 공익 캠페인은 범죄피해자가 외롭지 않음을 보여주는 뜻깊은 자리였습니다.

이 같은 열정이 뒷받침되어 새해에는 전국에 2개의 스마일센터를 추가로 설립하는 예산을 확보하였고, 그 설립을 위한 계획에 이미 착수하였습니다.

지난 한 해를 마무리하고 새해를 준비하는 시점에서 저는 2003년 범죄피해자지원센터 발족과 2005년 범죄피해자 보호법 제정 이후로 지금까지는 피해자 지원을 위한 제도와 법령을 갖추어 나가는 시기였다면, 앞으로는 갖추어진 제도와 법령을 기초로 수요자인 피해자 중심의 보호·지원의 내실을 다져 나가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장기적인 관점에서 범죄피해자에 대한 보다 실질적인 지원과 회복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계속하여 고민하고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인디언 속담에 ‘외나무가 되려거든 혼자 서고, 푸른 숲이 되려거든 함께 서라’라는 말이 있습니다. 범죄피해자들의 아픔과 고민을 늘 함께 하는 전국 범죄피해자지원센터 가족 여러분의 열정과 헌신은 범죄피해자들을 감싸주는 푸른 숲이 될 것입니다.

센터 종사자와 위원 여러분, 그리고 늘 보이지 않는 곳에서 범죄피해자의 보호를 위해 봉사하시는 여러분들께 깊이 감사드리며, 새해 건승과 건강을 기원합니다. 🍀



기부자와 수혜자가 함께 행복한 기부문화

1

기부자 마음의 상처

2017년은 유독 기부에 대한 부정적인 사건이 많았습니다. 2016년 연말에 K재단과 미르재단이라는 폭탄이 터지더니 2017년 하반기에는 기부금의 부정모집과 사용으로 모두를 충격에 빠뜨린 ‘새희망씨앗재단 사건’과 ‘이영학(어금니아빠)’이 있었습니다. 모금기관에서 일하는 사람들의 입장에서 여간 난처한 것이 아닙니다. 전혀 상관없는 조직의 일부 사건임에도 불구하고 이 사건을 계기로 기부를 해지하는 분들이 있었습니다. 아름다운재단 기부문화연구소의 기부현황조사인 ‘기빙코리아 2016’에서 기부하지 않는 이유에 대한 질문에 18.2%의 응답자가 ‘기부단체를 신뢰할 수 없어서’라고 응답했습니다. 다음 번 조사에서는 이 비율이 더 높아질까 두렵습니다.

다른 한 편 걱정되는 것은 기부자들입니다. ‘새희망씨앗재단’에는 4년간 약 5만 명의 기부자들이 128억 원이라는 돈을 기부했는데, 대부분이 유용되었다고 합니다. 심지어 이 사실이 밝혀지고 나서도 신용카드 할부로 돈을 계속 내야하는 기막힌 경우도 있었다 하니 선한 마음을 이용당한 마음의 상처에 미안하고

가슴 아픕니다. 개인적으로 12억 원을 모금한 ‘이영학(어금니아빠)’은 기부금을 유용한 정도가 아니라 엄청난 범죄의 피의자입니다. 이제 ‘기부’라고 하면 덜컥 ‘속는 것 아닌가’, ‘범죄에 악용되지 않을까’라는 걱정부터 떠오를 사람들의 마음을 어찌하면 좋을까요. 이는 128억 원, 12억 원의 돈에 비할 수 없는 재난이나 비극입니다.

2

왜 이런 일들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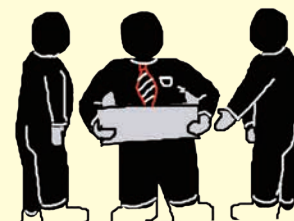
왜 이런 일들이 발생하는 것일까요? 많은 사람들이 법제도의 미진함을 지목합니다. JTBC 스포트라이트 프로그램에서는 ‘새희망씨앗재단’이 가능했던 이유로 비영리법인(단체)의 등록부서, 지정기부금단체를 지정하는 기획재정부, 그리고 실제 기부금 세제혜택을 제공하는 국세청 중 어느 부처도 실제로 법인의 활동을 감독하지 않는다는 것을 지목하였습니다. ‘이영학(어금니아빠)’에 대한 보도에서도 수년간 기부금품법에 등록하지 않았으며 비난의 목소리를 키웠습니다. 12년간 한 번도 등록한 적이 없다면, 등록하지 않은 사람보다 적발하지 않은 시스템이 문제입니다.

이런 사건이 노출되고 나면 국회가 바빠집니

다. 재발방지를 위해 제도를 개선한다고 합니다. 등록기준을 높이고 처벌을 강화합니다. 기존 천만원 이상 모금 시 등록하게 했던 기부금품법을 강화해서 금액기준을 더 낮춰야 한다는 주장도 있습니다.

이렇게 법제도를 강화하면 위와 같은 사건이 더 이상 발생하지 않을까요? 아름다운재단 등 많은 기관들이 등록기관 보고, 기재부 보고, 외부감사 후 국세청 보고, 그에 더해 기부금품법 등록과 보고를 위해 굉장히 많은 행정인력과 비용을 사용합니다. 문제는 법이 약해서가 아니라 법을 지키지 않는 단체와 개인을 적발하는 감찰기능이 작동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기부금 모집의 등록과 사용을 관리하는 행정안전부 조직도에서 관련 업무를 수행하는 인력은 단 2명입니다. 국세청에서 비영리기관의 감사는 거의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공익법인들에게 공시의무를 부과하지만 정작 공시가 제대로 되었는지 검수하는 인력은 배치하지 않습니다. 법제도가 느슨하거나 처벌이 약해서가 아니라 법제도가 지켜지기 위해 필요한 일을 하지 않는 것이 문제입니다.

‘새희망씨앗재단’의 사례가 우려되는 이유는 현재 모금의 약점을 파악하여 악용했기 때문입니다. ‘이영학사건’은 기존 텔레비전 방송에서의 사연소개를 통한 모금에서의 문제 뿐 아니라 소셜미디어를 통해 수혜자가 직접 기부자에게 모금을 요청하고 기부가 이루어졌기 때문에 더 큰 우려를 낳고 있습니다.



과 동시에 소셜미디어를 통한 수혜자 직접 기부와 그에 따른 위험성도 높아진다는 것을 알 수 있게 합니다.

3

어떻게 이해해야 할까?

아름다운재단에서 시행하는 한국의 기부문화 조사인 기빙코리아에 따르면 한국의 기부참여율은 2011년 57.5%에서 2013년 48.5%, 그리고 2015년 45.6%로 낮아졌습니다. 경기 둔화가 이어지면서 올해의 부정적인 사회적 분위기로 인해 기부참여는 더 낮아질 것으로 예상됩니다. 몇몇 대형 기관에서 부정적 사건의 여파로 기부 해지가 있었다는 소식이 들려오는데 인지도가 낮은 중소형 기관들은 더 큰 타격을 입을 수 있습니다. 기존의 기부금 수입을 유지하기 위해 더 많은 모금활동을 준비하거나 어떤 기관은 기부금이 줄어든 가운데 사업 운영을 대비해야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를 포함한 대부분의 비영리 종사자들은 이 사건을 원망스럽게 봅니다. 지난 수십년간 좋은 의도로 건강하게 일하고 있는 99%의 노력이 폄하되고 있습니다. 지난 십여 년간 법제도는 더 많은 투명성과 보고의무를 높여오고 있었고, 이로 인해 기관들의 운영도 선진적으로 합리화되어왔는데, 이번 사건은 너무 극단적이고 억울한 것처럼 보이기도 합니다.

하지만 다른 한축으로 보면, 국내 공부방 아이들에게 교육기회를 주겠다고 걸려온 전화 한통에 기부를 결정한 사람들이 5만 명이 되어가고 현재에도 거리모금을 통해 기부에 응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기관을 믿을 수 없다는 사람이 절반이라면 나머지 절반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선의와 신뢰를 보내고 있습니



전현경
아름다운재단 기부문화연구소
전문위원

다. 국세청에 보고되는 전체 기부금이 2000년에 4조 3천억 원 규모에서 2014년 12조 원 규모로 성장했습니다. 그간 공익을 위해 헌신하는 사람들에 대한 시민들의 호응이 부족하지 않았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다만, 기부금 규모가 3배 규모의 양적 성장을 이루는 동안 더 많은 모금에 전념하느라 놓쳐왔던 질적 성장이나 고질적인 위험요소들이 물 위로 떠오른 것으로 보이기도 합니다. 묵혀온 문제를 꺼내놓고 아플지언정 치료해야 하는 시기가 온 것입니다.

4

우리가 놓친 것들, 혹은 외면했거나?

첫 번째로는 앞서서도 언급되었던 법제도 운영의 문제입니다. 현재 비영리의 등록과 관리, 기부금 세제혜택과 모집행위에 대한 관리는 여러 부처에 각기 다른 기준으로 이루어집니다. 각 부처와 지자체에서 전담자가 없는 경우도 있습니다. 현재 대한민국에 비영리법인의 전체 수와 구성, 예결산 규모에 대한 일관된 자료가 존재하지 않습니다. 법을 지키려는 기관은 3중, 4중의 중복적인 보고의무에 시달리는 반면, 보고를 받는 부처들 중 누구도 실사를 하지 않기 때문에 '새희망씨앗재단'과 같은 기관도 살아남을 수 있었습니다. 사고가 나면 이것을 비영리기관의 문제로 탓하고 법적 의무조항을 늘리는 것으로 자신의 할일을 다했다고 시전하는 국회와 정부의 태도를 이제는 바꾸어야 합니다. 선한 단체는 늘어가는 준법의무에 허리가 휘고, 그 틈새를 악용하는 악인들을 막을 수 없습니다. 준법을 위한 현실적인 지침과 소규모 기관을 위한 현실적 적용방법을 제공하는 서비스를 늘려

야 합니다. 실제 인터넷 상에 '새희망씨앗재단'을 검색해보면 기관이 의심스럽다는 글들이 수년 전부터 올라와 있습니다. 이런 제보를 받고 검수하는 기능을 국가차원에서 강화해야 할 것입니다.

두 번째로는 비영리기관들이 모금의 윤리나 법제도에 대한 공론의 장을 만들지 못했다는 것입니다. 아름다운재단에서 기부자 그룹 인터뷰를 진행해보면, 기부자라 할지라도 기부단체의 정보를 살펴볼 시간이나 정신적인 여유가 많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법제도 준수를 기본으로 하더라도 그 위에 사회적으로 기대되는 것, 그리고 각 기관의 가치에 따라 강조해야 할 윤리적 행위를 공포하고 그 준수여부를 손쉽게 파악할 수 있는 인프라를 만들어야 합니다. 서구에는 비영리기관들의 협회나 모금기관들을 위한 엄브렐라 조직들이 활성화되어 있습니다. 엄브렐라 조직들은 법 이상의 윤리적 기준을 표준화하고 그 실행여부를 인증하여 기부자에게 더 높은 신뢰를 줄 수 있습니다. 사실, 이번처럼 부정적인 사건이 터졌을 때 개별 기관은 부정적인 이미지와 함께 노출되는 것이 두려워 발언을 하지 못합니다.

그러나 엄브렐라 조직이 활성화된 나라에서는 개별 기관이 아닌 협회나 네트워크 조직이 이 문제를 공론화시키고, 오해지점을 해명하고 전반적인 개선안을 제시합니다.

마지막으로 우리가 모금을 할 때 기부자와 어떻게 소통해 왔는가의 문제입니다. 기부는 동서양 모든 나라에서 '감정적인 반응'으로 시작합니다. 기부자와 수혜자는 사회적인 위치와 생각이 많이 다릅니다. 저부터도 기부자가 갖는 순진한 희망들이 현실과 맞지 않는 지점에서 침묵하거나 어물거리며 넘어간 적이 많

습니다. 기부자들은 자신의 돈이 어떻게 사용되는지 알고 싶어하고, 그 결과를 눈으로 직접 보고 싶어합니다. 그러나 수혜자의 인권이나 사업의 복잡성 등으로 쉽지 않습니다.

사람들은 기관을 통했을 때 드는 운영비를 낭비라고 생각합니다. 그런 것이 현실과 다르다는 것을 말하는 것은 기부자의 마음을 상하게 하고, 분명히 모금액에 부정적 영향을 미치게 됩니다. 우리가 말하지 못하는 동안 그 틈을 타서 수혜자를 직접 볼 수 있고 선택할 수 있으며 운영비는 전혀 들지 않는다는 기부 프로그램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물론 새로운 기술을 통해 효율성을 높이는 것은 환영할 만한 일입니다. 그러나 수혜자를 직접 보아야 한다는 것은 많은 경우 위험한 발상입니다. 좋은 기부는 도움을 주되 그 과정에서 도움 받는 사람과 관련 환경에 부정적인 영향을 주지 않아야 합니다. 그러기 위해 비영리 모금기관들이 존재하는 것입니다.

5

이 일을 해야 하는 이유

그렇습니다. 지금도 과중한 업무와 부족한 자원에 고생하는 비영리 기관들에게 공론의 장에 참여하고 엄브렐라 조직이 만들어질 수 있도록 회비도 내라고 하는 것, 기부자가 듣기 싫어할 말을 하라는 것은 무리한 요구일 수 있습니다. 이는 기관에 운영부담을 높이고 기부금에 손해를 입히는 일을 요구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현재와 같은 흐름이 지속된다면 개별 기관들이 개별적으로 그 영향을 피해가는 것은 어렵기 때문에 함께 고민하여 장기적인 해결점을 찾아가야만 합니다. 그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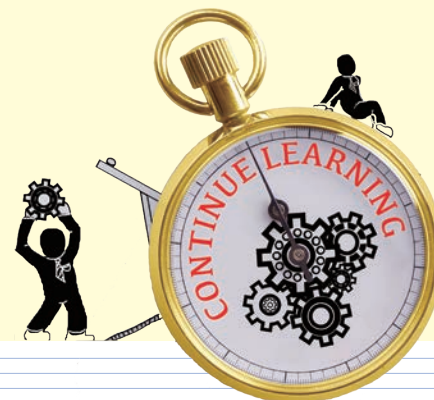
고 무엇보다도 기부와 모금, 비영리의 활동은 단지 '돈'의 문제가 아니기 때문에 더 그러합니다.

그렇게 많은 비영리기관들이 정부가 하지 못하는 일들을 하느라 고생하고 있다면, 왜 세금을 더 많이 걷어서 그 일을 하지 않는 것일까요? 여러가지 이유가 있겠지만, 제가 생각하는 가장 중요한 이유는 '우리가 공동체로서 선의에 기반하여 도움을 주고받는 관계를 경험하는 것' 자체입니다.

대부분의 기부자들이 '기부를 하면서 본인이 더 많은 것을 얻었다'라고 말합니다. 이것은 단순한 인사치레가 아닙니다. 이들이 느끼는 행복감을 학계에서는 Warm Glow나 Giver's High라고 명명하였고, 이는 신체적·정신적 건강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칩니다. 또한 네트워크와 신뢰가 좋은 사회는 고립과 불신에 의한 막대한 사회적 비용을 피할 수 있습니다. 민간의 기부문화란 단지 정부의 세금이 부족한 것을 개인들에게 구하는 것이 아닙니다. 기부하는 사람과 도움을 받는 사람, 혹은 공익 아젠다를 만들어 실행하는 과정에서 서로의 존재를 확인하는 관계의 경험이자 사회에 공헌하는 자신을 발견하는 자아실현의 장입니다.

이것은 그 자체로 기부금 이상의 가치를 가지며, 기부금으로 행한 공익사업과는 별개로 사회에 이바지합니다.

비영리모금기관이 하는 두 가지의 귀한 사회적 기여를 생각한다면 우리가 상처받은 기부자를 위로하고 대안을 찾는 지난한 과정들이 단지 힘들지만은 않을 것이라 믿습니다. 그리고 지금부터는 모금하는 일에 대한 자부심이 한층 더 높아져도 좋지 않을까요? 🌟



KOREA
CRIME
VICTIM SUPPORT
ASSOCIATION

Story

전국 센터 사무처장 회의

전국범죄피해자지원연합회에서는 2017. 7. 18(화) 대검찰청 베리타스홀에서 전국 센터 사무처장 회의를 개최했습니다.

환경과 여건의 변화에 따라 피해자 지원 사업에 대한 관심과 참여가 확대되면서 사업의 방향정립을 위해 개최된 이날 회의에서는 법무부 인권구조과장과 전국 센터 사무처장이 참석하여 10여 년간 피해자지원의 중추기관으로서 노력해 온 현실에 비해 급격한 환경변화에 따라 센터의 입지와 역할에 대한 집중적인 논의가 있었습니다.

이어서 연합회 하반기 업무 추진 계획을 설명하는 시간에서는 범죄피해자 인권대회 10주년을 맞아 기념 세미나 개최, 범죄피해자 지원확대를 위해 에스원과 공동개최하고 있는 제4회 '다링' 안심캠페인 행사, 자원봉사자 교육 방안에 대해 계획을 전달하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아울러 센터 월별활동실적에 대한 관심과

새롭게 전면개편 구축된 통합 홈페이지 운영 활성화에 대한 협조 요청이 있었으며 상반기 홈페이지 홍보실적과 월별 활동실적 우수 7개 센터에 대해서 격려차원의 보로금을 지급하겠다는 계획도 이어졌습니다.

끝으로 연합회에서는 중요한 시기에 구동존이[求同存異] (차이는 인정하되 공동의

이익을 추구한다.)의 자세로 함께 힘을 합쳐 어려움을 극복하자고 강조하면서 참석자들의 건강을 기원하며 회의를 마무리했습니다.



박민식 변호사 연합회 법률고문 위촉식

전국범죄피해자지원연합회에서는 지난 2017. 9. 7(목) 대검찰청 15층 중회의실에서 박민식 변호사(전 부산 국회의원)의 법률고문 위촉식 행사를 개최하였습니다. 이날 행사에서는 범죄피해자보호법과 범죄피해자 기금법 등의 제정에 있어 중심 역할을 해온 박민식 변호사를 연합회와 센터의 업무 지도와 육성 발전을 위해 법률 고문으로 위촉하였습니다.

박민식 변호사는 김갑식 연합회장으로부터 위촉패를 전달받은 후 환경과 여건의 변화 속에 센터의 입지와 역할을 정립하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는 포부를 이야기했습니다.

김갑식 연합회장은 인사말을 통해 범죄피해자 보호·지원에 큰 발자취를 남긴 박민식 변호사님을 연합회 법률고문으로 위촉하여 마음이 든든하며 연합회와 센터의 발전을 위해 지속적인 관심과 성원을 부탁드립니다

이날 법률고문으로 위촉된 박민식 변호사는 범죄피해자 보호·지원 입법 관련 분야와 제도 및 정책개선에 있어 많은 그간의 경험을 바탕으로 많은 활동이 기대되고 있습니다.



2017 다링 청소년 PRIDE-UP 캠프 개최

전국범죄피해자지원연합회에서는 2017. 8. 23(수)부터 2017. 8. 25(금)까지 제주도 일대에서 범죄피해 청소년을 위한 다링 PRIDE-UP 캠프를 개최하였습니다.

범죄피해자와 가족 중 청소년을 대상으로 진행하는 다링 PRIDE-UP 캠프는 전국 센터와 연합회, 에스원 자원봉사자 등 30여 명이 참석하였는데, 이번 캠프는 범죄피해 가정이라는 어려운 환경에서 자칫 위축되고 폐쇄적인 성향으로 생활할 수 있는 청소년들을 위해 2014년도부터 범죄피해자 보호·지원에 대해 뜻을 같이하고 있는 국내 최대 보안기업인 삼성에스원의 후원에 의해 연합회 주최로 개최하였습니다.

방학기간 동안 답답한 실내에서 벗어나 또래 친구들과 함께 숲길 걷기, 일출랜드 등 제주도 유명 관광지 탐방, CPR 교육 등 다양한 체험을 하고, 협동심을 필요로 하는 레크리에이션을 통해서 서로의 생각은 다르지만 이해하고 단합하며 배려하게 될 수 있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연합회에서는 범죄피해자 청소년들을 위해 이번 캠프에서 부족한 부분은 보완하고 잘된 부분은 키워나가면서 향후에도 범죄피해 청소년의 정서 회복을 위한 발전적인 프로그램을 마련할 계획입니다.



함께 걸으면서 범죄피해자를 생각합니다. [범죄피해자 인식개선을 위한 제4회 "다링" 행사 성황리 개최]

2017. 10. 14(토) 근래 보기 드문 쾌청한 날씨 속에 수많은 인파가 서울 능동 소재 서울어린이대공원에 모였습니다.

매년 범죄피해자에 대한 인식개선과 범죄피해자 지원확대를 위해 전국범죄피해자지원연합회와 에스원이 공동주최하고 법무부가 후원하는 “다링”공익캠페인 행사가 4회째를 맞이하여 박상기 법무부 장관, 김갑식 전국범죄피해자지원연합회장, 육현표 에스원 대표이사 등 내빈과 전국범죄피해자지원센터 종사자 및 자원봉사자 그리고 일반 참가자와 시민 등 2,000여 명이 참여한 가운데 성황리에 개최되었습니다.

금번 “다링”공익캠페인은 네이버 해피빈을 통한 온라인 홍보를 시행하여 보람이 인형, 다링 팔찌, 다링 बै지 등의 구매 펀딩을 새롭게 시도했으며 일반인이 다수 운집하는 서울어린이대공원에서 범죄피해자지원 사회적기업인 평택안성센터의 철보공예 무지개공방, 심리지원전문기관인 스마일센터의 홍보부스 운영과 다링 머리핀 만들기, 범죄피해자에 대한 위로와 격려 메시지를 트리에 다는 희망편지 달기 등 다채로운 프로그램을 운영해 일반 참석자들의 많은 관심을 받았습니다.

김병찬 아나운서의 진행으로 열린 이날 행사에서는 김갑식 연합회장과 육현표 에스원 대표가 범죄피해자에 대한 따뜻한 관심에 감사드린다는 인사말이 있었고 “혼자 걷는 열 걸음보다 함께 걷는 한 걸음이 더욱 아름답다”라는 말처럼 오늘의 한 걸음이 우리 사회를 아름답게 만든다는 박상기 법무

부 장관의 격려사가 있었습니다. 이어서 침묵 속에 웃음과 감동을 선사하는 스토리텔링 마임팀 “우카탕카”의 공연 후 본 행사인 걷기대회를 위한 테이프 커팅식에는 종전과는 다르게 각 기관의 대표뿐 아니라 행사의 중심인 피해자와 함께 자원봉사자와 그 가족들이 참여하여 함께 피해자의 치유와 회복이라는 같은 목적으로 걷는다는 의미를 더했습니다.

참석자들은 가을의 정취가 완연한 약 3.5km의 어린이대공원 코스를 걸으면서 4개 구간에서 인증도장을 받았으며 어린이회관 앞 잔디광장 주변에서 곳곳에 숨겨져 있는 캡슐공을 찾는 보물찾기를 하면서 잠시 동심에 젖기도 하였습니다.

걷기대회가 끝난 후 2부 순서에서는 김가희 아나운서의 진행으로 의도적으로 농약을 넣은 소주를 마신 아버지를 떠나보낸 가슴 아픈 과정과 그 이후 의성군위청송 범죄피해자지원센터의 지원과 멘토의 도움으로 어려움을 이겨내고 치유와 회복의 시간을 갖고 있는 피해자의 절절한 사연이 소개되어 참석자들이 숙연해지기도 하였습니다.



에스원 걷기대회를 통한 에스원 범죄피해자 지원금 5,026만 원은 에스원 자원봉사자 가족을 통해 김갑식 전국범죄피해자지원연합회장에게 전달되었고 브라스밴드 바스커션의 공연으로 대미를 장식하였습니다.

특히 참가신청자들이 금번 행사에 대해 “너무 좋은 행사라서”, “범죄피해자와 가족에게 작은 힘이 되고 싶어서”, “함께 걸으며 위로하고 싶어서” 등 참여 동기를 화면으로 보여주면서 이날 행사의 의미를 공유하며 한마음이 되는 시간을 갖기도 하였습니다.

전국범죄피해자지원연합회는 범죄피해자에 대해 각별한 관심과 성원을 보내주고 있는 안전과 안심의 기업 에스원과 함께 범죄피해자와 그 가족들이 위축되지 않고 일상과 사회에 적응할 수 있도록 격려하고 위로하며 피해자가 원하는 지원을 통해 함께 희망을 가질 수 있도록 앞으로도 더욱 노력할 계획입니다.



제10회 한국범죄피해자 인권대회 및 기념 세미나 성황리 개최

2017. 11. 15(수) 제10회 한국범죄피해자 인권대회 및 기념 세미나가 법무부와 전국범죄피해자지원연합회 공동주최로 과천정부청사 대강당과 대회의실에서 개최되었습니다.

이날 행사는 박상기 법무부장관, 김갑식 전국범죄피해자지원연합회장, 김현 대한변호사협회 회장 및 유관기관장 등 내빈과 센터위원 및 종사자 등 700여 명이 넘는 참석자로 성황을 이루었습니다.

제10회 인권대회를 기념하기 위해 신제적 정신적 학대를 받은 포항지역 청소년 피해자들로 구성된 ‘가가호호 음악애(愛) 올림’밴드의 식전공연을 시작으로 대구지하철사고로 태동된 센터의 역사와 연혁을 보여준 10주년 기념 동영상 상영, 유공자 시상식, 10주년 기념 영상 세레모니, 우수지원사례발표, 피해극복사례 발표 프로그램으로 진행되었습니다. 특히 피해극복사례 발표는 학교폭력을 당한 피해 학생의 어머니와 직접 지원을 도와준 부천김포센터 직원이 함께 피해극복사례를 샌드아트를 통해 표현해 감동을 이루었고 파랑새 공연단의 위로 공연으로 참석하신 많은 분들의 뜨거운 눈물과 함께 심금을 울렸습니다.

또한 시상식에는 국민포장(고양파주센터 박미화 감사), 대통령표창(군산익산센터 김원요 이사장, 대전센터 정성필 운영위원), 국무총리표창(강릉 고광록 이사, 경기북부 김한철 운영이사, 안양 안대중 고문, 마산 윤태석 이사장), 장관표창, 연합회장표창, 동아일보 자원봉사대상 등 총 개인 86명, 5개 단체의 시상으로 그간의 노고를 격려하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당일 오후 전국범죄피해자지원연합회와 한국피해자학회가 공동주최한 기념 세미나에는 “범죄피해자 보호·지원의 현황과 과제”라는 주제로 성균관대 박광민 교수가 좌장으로 진행을 해주었으며, 원혜옥 인하대 교수의 “범죄피해자 보호·지원을 위한 법제도 및 기관의 개선방안”, 김해경 계명대 교수의 “통합적 범죄피해자 보호를 위한 기본이념 정립과 개선방향” 주제 발표와 이어진 종합토론으로 의미를 더한 하루였습니다.



주한미군 관련 범죄피해자 보호지원에 관한 업무협약 체결



외교부, 대검찰청, 경찰청 및 전국범죄피해자지원연합회는 2017. 12. 22(금) 주한미군, 군속 및 그들의 가족과 관련된 범죄로 인해 생명·신체 피해를 입은 자(이하 “주한미군 관련 범죄피해자”)에 대한 보호·지원을 위하여 상호 적극 협력하기로 하고 업무협약을 체결하였습니다.

동 업무협약에는 주한미군 관련 범죄피해자를 위한 경제적 지원, 의료 지원, 심리 상담지원, 법률 지원 등의 분야에 있어 유관기관이 상호 협력하고, 필요 시 협의기구를 구성하여 운영할 수 있다는 내용 등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이번 업무협약은 주한미군 관련 범죄피해자들이 주한미군지위협정(SOFA)상의 피해구제 제도뿐만 아니라 기존 국내법상 범죄피해자 지원제도를 더욱 적극적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하자는 취지에서 추진된 것으로서, 향후 관련 범죄피해자를 위한 보호·지원의 효율성이 크게 강화될 것으로 기대되고 있습니다.



‘피해자지원센터’와 함께하는
대검찰청 캘리 동호회



최근 그림인 듯 그려나가는 글씨, 캘리그래피가 글자를 아름답게 쓰는 기술을 넘어서 새로운 재능 기부의 수단으로 각광받고 있습니다.

대검 캘리 동호회는 평소 과중한 업무 속에서 대검 직원들을 중심으로 적극적인 참여와 기량 연마를 통해 캘리 재능을 효과적으로 기부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으며 특히 피해자지원센터와 연계한 봉사활동을 통해 피해자의 치유와 회복에 힘을 보탬 계획입니다.

동호회에서는 전국 지역별 ‘피해자지원센터’에서 주관하여 진행되는 각종 행사 등에 직접 참가하거나 참여하여 재능을 기부하거나 ‘피해자지원센터’에서 운영하는 사회적기업 희망카페 등에 필요한 문구, 메뉴판, 캘리소액자를 제작 지원하고 또는 무료 작품전시 및 판매 등을 통해 피해자 지원 사업에 기여할 수 있도록 향후 적극적인 활동을 구상하고 있습니다.

대검 캘리 동호회는 대검 반부패부의 배정 실무관(雅號 遡遊 아호: 소유)이 주축이 되어 활동하고 있으며 지난 11월 제10회 한국범죄피해자 인권대회에서 피해자와 그 가족들에게 용기와 희망을 주는 문구와 메시지를 전시해 많은 호응을 받기도 하였습니다. 이어서 배정 실무관이 12월 평택호 예술회관에서 “캘리포니아 여행을 떠나다”라는 개인전을 개최하였으며, 다수의 회원들이 참여하여 대검청 청사 내에서 캘리그래피 동호회 회원전을 열어 따뜻한 직장 분위기 조성하고 함께 소외된 이웃이 훈훈한 겨울을 보낼 수 있도록 하는데 기여하였습니다. 📍

서울중앙센터

2017년도 동절기 김장지원 행사



서울중앙센터(이사장 이용우)에서는 2017년 11월 20일, 충남 청양 칠갑산 자락의 한울 김치 공장에서 겨울

철 월동준비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범죄피해자 가족을 위한 사랑과 희망 김장 나눔 행사를 개최하였습니다. 올해로 5년째를 맞이하는 김장지원 행사는 센터 이용우 이사장 외 위원 7명, (주)한울 백남춘 회장 외 전 직원이 동참하여 '당신이 웃는 내일을 희망합니다'라는 구호 아래 즐거운 마음으로 진행되었습니다.

이날 약 3천 포기의 배추와 무, 김치 등은 강력범죄피해자 120가정에 전달되어 추워지는 날씨에 더욱 소외되기 쉬운 피해자 가족에게 희망과 위로가 되었고 피해가족에게서 제일 사랑받는 지원이 되었으며 하루 빨리 피해자 가족이 사회에 복귀하기를 기원하는 마음으로 행사를 마쳤습니다.

범죄피해자를 위한 '아름다운 동행 - 힐링캠프'

서울중앙센터(이사장 이용우)에서는 2017년 11월 20~21일, 1박 2일간 강력범죄피해자와 그 가족 및 유족의 신속한 사회 복귀를 위한 '2017년도 아름다운 동행' 힐링캠프를 개최하였습니다. 단풍이 진하게 물든 가을날, 역사적으로도 의미가 깊은 공산성과 마곡사를 둘러 역사 해설과 함께 가을빛처럼 아름다운 추억을 새겼습니다.

이후 지난 2008년 논현동 고시원 살인사건으로 인해 딸을



잃는 아픔을 겪은 후 자립하여 기반을 닦고 활발한 사회생활을 하고 있는 범죄피해자 가족을 격려하기 위해 진도로 향했습니다. 이 피해자는 사건의 아픔으로 오랜 시간 고통받아 왔으나, 센터의 지원과 피해자 가족들의 굳은 의지로 다시 사회의 한 일원으로 자립에 성공하여 좋은 귀감이 된 바 있습니다. 이날 각기 다른 사연을 가진 여러 피해자들이 함께 아픔을 나누고 공감하면서 즐거운 만찬을 즐기기도 했으며 센터 위원과 피해자 가족이 조를 이뤄 분임토의를 하면서 그간의 아픔에 대해 그리고 애로사항에 대하여 심도 있는 대화를 나누었습니다.

아울러 진도 일대를 둘러보고 함께 기념사진을 촬영한 후 점심식사를 끝으로 아름다운 동행을 마무리하며 1박 2일 일정의 힐링캠프를 뜻깊고 의미있게 마쳤습니다.

2017년도 보호위원회 정례회의 및 오찬간담회



2017년 11월 16일, 서울중앙지방검찰청 범죄피해자 보호위원회가 개최되었습니다. 오전 11시부터 검찰청의

보호위원으로 위원장(제1차장검사 윤대진), 사무국장, 형사3부, 형사5부, 여성아동범죄조사부, 강력부, 총무부 부장검사와 지자체보호위원, 서울시 인권감독관 외 6개구 부구청장, 서울중앙센터 이사장이 참석하여 2017년 사업보고 및 2018년 예산 등 피해자 보호 지원의 확대에 따른 예산 증액과 지자체 실무담당 간담회를 정기적으로 실행하기로 의결하였습니다.

이어 오찬간담회에서는 최근의 범죄피해자 보호와 지원에 대한 폭넓은 토론과 대화를 가진 후 마무리하였습니다.

서울동부센터

관내 4개 경찰서 피해자전담관 면담

서울동부센터(이사장 이지호)에서는 관내 강력범죄피해자에 대한 지원 협력체계를 원활하게 구축하기 위해 수시로 관내 4개 경찰서와 업무협의 및 만남의 시간을 갖고 있습니다.



2017년 12월 4일, 센터 회의실을 방문한 피해자전담 경찰관 등 관계자들은 2017년도 센터의 긴밀한 협조

에 감사의 뜻을 전하면서 그간의 실적에 대한 논의와 함께 2018년도 활동방안에 대해 협의한 후 양진선 담당검사와 함께 지속적인 협력체계와 의견을 공유하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서울남부센터

범죄피해자심리지원단 구성- '찾아가는 심리적 지원' 제공



서울남부센터(이사장 이종문)에서는 2017년 5월부터 대학병원 근무경험이 있는 임상심리사로 자체 심리지

원단을 구성하였습니다. 이를 통해 전문적 상담을 제공함과 동시에 청 내에서 상담 진행하여 피해자의 접근성을 높여 신속한 심리상담이 이루어지도록 하고 있습니다. 또한 자체 검사척도를 활용하여 5회기~10회기 종료 시 우울, 불안도, 회복 탄력성 등을 다시 검사하여 피해회복에 최적화된 심리지원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송민수 사무처장은 임상심리 검사결과 강력범죄피해자분들이 전반적으로 호소했던 불안, 우울, 공포 등이 현저하게 줄어 거의 일반적인 상태로 돌아온 것으로 보여지며, 일상생활을 영위하는데 어려움이 없을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습니다.

서울북부센터

사랑의 저금통 모금

서울북부센터(이사장 최주봉)에서는 범죄피해자 중 사건 발생 기간이 3년 이상 경과하였거나, 사건발생 당시 신고가 되지 않아 그동안 피해자보호와 지원을 받지 못한 사





각지대 피해자를 돕기 위하여 ‘사랑의 모금운동’을 전개하였습니다.

이 행사는 센터 이사를 비롯한 이사, 운영위원, 센터 위원 및 직원들이 모두 동참하여 각 가정과 사무실, 사업장에 돼지저

금통을 비치하고 1년에 2회 저금통을 회수하여 모금액 전액을 국고나 지방자치단체 보조금으로 지원을 받지 못하는 피해자를 지원할 계획입니다.

센터에서 이러한 모금운동을 전개하게 된 이유는 상담을 위해 방문한 피해자들 중에는 오래 전에 범죄피해를 입고도 제도를 알지 못해 국가로부터 지원을 받지 못한 안타까운 피해자와 범죄발생일로부터 3년 이후에 사건을 신고한 일부 성범죄자들의 사례를 접하고, 현행 센터 규정상 제도 밖의 지원 방안을 모색하는 차원에서 시작되었습니다. 비록 큰 모금액은 아니지만 모든 센터 관계자들이 1년간 피해자를 돕기 위한 사랑의 마음으로 정성껏 모은 동전으로 피해자를 지원하는 행사로 따뜻한 사랑의 마음이 전달되어 피해자의 아픔이 조금이나마 위로 받고 아픔이 치유되는데 보탬이 되기를 바라고 있습니다.

서울서부센터

범죄피해자를 위한 ‘카페 수익금 전달’



서울서부센터(이사장 김갑식)에서는 사회적기업인 카페 행복마루를 운영하고 있으며, 피해자 및 취약계층에게

취업의 기회를 제공하며 수익금 전액을 피해자 지원 사업으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2017년도 수익금은 1,000만 원씩 2회에 걸쳐 총 2,000만 원으로 피해자 50명에게 지급하여 새로운 용기와 희망의 계기가 된 바 있습니다.

통합네트워크 회의



서울서부센터(이사장 김갑식)에서는 34개 기관 및 단체와의 협약을 통해 원활한 범죄피해자 보호·지원을 위한 교류를 하고 있습니다. 2017년 9월 12일에는 서울서부스마일센터에서 25개 기관 및 단체의 담당자들이 참석하는 통합네트워크 회의를 개최하여 범죄피해자 연계 안내 및 절차 등 신속한 원스톱 지원에 대한 전반적인 내용을 심도 있게 토론하였습니다.

파랑새의 밤! 작은음악회



서울서부센터(이사장 김갑식)에서는 2017년 10월 24일, 서울서부지검별관 카페 행복마루에서 피해자

와 그 가족들을 초대하여 작은음악회를 개최하였습니다. 가수인 피해자의 아버지께서 음향장비 제공과 연주에 동참하였으며, <위대한탄생3> 출신 가수 구현모, 해금 연주자 천재상, 시각장애인 가수 오하라, 시낭송인 남기선, 파랑새공연단 단장 김미현으로 구성된 음악회에서 피해자와 그 가족, 그리고 검찰의 직원들이 함께 문화의 향수를 즐길 수 있는 뜻깊은 시간이 되었습니다.

고양파주센터

피해자 가정을 위한 사랑의 김장나눔 행사 실시

고양파주센터(이사장 류은경)에서는 2017년 11월 13일, 최근 범죄피해자들 및 가족에 대한 지원 뿐 아니라 지역사회



할지역을 분할하여 지부를 설치하고 지부장 위촉 및 지부위원들을 영입하여 피해자 가정을 위한 김장 및 나눔 행사를 실시하였습니다. 김장철을 맞이하여 가정환경이 열악한 피해자 가정 9곳을 선정하여, 센터 박미화 감사(총괄지부장)의 주도로 직접 김장을 하고 피해자 가정까지 배달하는 나눔 행사를 진행하였습니다.

김장을 전달받은 피해자들은 추운 날씨에도 본인들을 위한 나눔의 행사에 감사의 마음을 표현하였으며, 센터에서는 각 지부의 적극적인 활동을 뒷받침하며 좀 더 다채로운 봉사 프로그램 계획을 수립하여 진행할 예정입니다.

하반기 범죄피해자가정 아동집단상담 및 보호자 자조모임 실시



고양파주센터(이사장 류은경)에서는 범죄피해자의 자활을 위해 5단계 힐링지원사업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2017년 상반기에서 하반기에 걸쳐 범죄피해자 가정의 아동들에 대한 집단상담 실시 및 보호자들에 대한 자조모임을 실시하였습니다.

고양파주센터에서는 경제활동의 이유로 체험활동의 기회가 적은 아동들을 모집하여, 2017년 7월 1일에는 배다골 테마파크, 7월 8일에는 아쿠아플라넷, 8월 12일에는 계곡 물놀이장을 진행하였습니다. 힐링지원프로그램의 취지에 맞게 아동들에게는 토래와의 유대관계 형성 기회 및 체험활동을 통한 학습효과 등을 제공하였으며, 보호자들에겐 자녀들을 양육함에 있어 힘든 점들을 공유하고 서로를 위로하며 힐링 할 수 있는 시간을 제공하였습니다.

고양파주센터는 효과를 고려하여 체험 참여에 적합한 대상자들을 적극적으로 발굴하여 지속적인 프로그램을 진행 예정입니다.

인천센터

피해자지원을 위한 통합네트워크 3차 회의 개최



인천센터(이사장 김재기)에서는 2017년 7월 27일, 인천센터 상담실에서 피해자지원을 위한 유관기

관 통합네트워크 회의를 개최했습니다. 회의에는 인천지방검찰청 피해자법무담당관, 인천남부경찰서 피해자전담경찰관, 사랑병원 관계자가 참석하여 최근 발생한 중상해 피해 사건에 대한 피해자지원에 관하여 논의하였습니다. 참석자들은 피해자의 법률지원, 심리지원, 경제적 지원 등에 관련하여 피해자회복에 유관기관이 적극 참여하여 돕겠다는 의견을 냈습니다.

사랑나눔 김장담그기 행사 및 김장 지원



인천센터(이사장 김재기)에서는 2017년 11월 3일, 인천지검 1층 구내식당에서 ‘사랑나눔 김장담그기’ 행사를 개최하였습니다.

이날 행사에는 공상훈 검사장, 김재기 이사장, 김석재 1차장검사, 서영민 2차장검사, 사무국장, 피해자 전담검사, 사건과장, 센터 임원, 위원, 자원봉사자, 그리고 피해자 및 그 가족 등 50명이 참석해 직접 김장을 담았습니다. 이날 만든 김장김치는 지난 1년간 피해자지원센터에 접수된 피해자 중 63가정을 선정해 전달하였습니다.

이날 행사는 피해자 및 그 가족이 직접 김장 담그기 행사에 참여하여 또 다른 피해자 가정에 전달할 김장을 함께 담금으로써 사랑 나눔의 의미를 더했습니다. 이날 담근 김

치는 범죄피해자 가정에 따뜻한 겨울을 보내기를 바라는 마음을 담아 전달하였습니다.

부천김포센터

범죄피해자를 위한 ‘밀착지원 맞춤형 상담 및 생활지원도우미’ 사업 진행



부천김포센터(이사장 이문성)에서는 범죄피해자들의 심리적 피해 회복을 위하여 2005년부터 피해자 심리치료비를 지원하고 있었지만 일부를 제외한 다수 피해자들이 생업 및 학업시간에 겹쳐 병원과 상담기관의 근무시간에 맞추어 방문하지 못하거나, 외부의 시선을 염려하여 방문을 어려워하는 경우가 많다는 점을 확인하였습니다.

이에 부천김포센터에서는 기존 지원제도에서 소외되고 있던 범죄피해자들의 피해 극복을 위하여, 전문 심리상담지원과 생활지원 자원봉사활동을 함께 지원할 수 있는 ‘심리 피해 회복 및 맞춤 care 활동’을 계획하고 상담자격증소지 및 상담경력자들을 센터 상담위원으로 위촉하여 2014년부터 주말과 저녁시간을 포함한 가정방문상담 및 생활지원을 실시하였고, 피해자 담당상담사가 피해자의 상황을 빠르게 파악하고 센터와 정보를 공유하여 적절한 심리상담과 센터 및 유관기관 연계지원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센터에서는 피해자에게 배정된 담당상담사를 통하여 피해자와 가족의 심리피해회복을 주 1회 지원할 뿐 아니라, 피해자지원제도 안내 및 접수 도우미 활동, 정신과질환에 대한 무지로 인해 피해자의 상태를 이해하지 못하고 가정 내 갈등이 발생하는 경우 가족 간 중재와 조정, 피해자 치료나 사건처리에 집중되어 본의 아니게 소외되는 가정 내 아동이나 노인 지원, 법정동행 등 수사기관이나 행정기관 동행지원, 타 기관과의 중복지원 방지를 위한 확인 작업 등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부천검찰청과 함께하는 피해자 원상회복지원 ‘사랑의 손잡기’



부천김포센터(이사장 이문성)에서는 2005년부터 「범죄피해자지원 사업」의 일환으로, 범죄피해로 인하여 어려움을 겪고 있는 범죄피해자들을 지원하여 범죄로 인한 피해를 극복하고 원상회복하여 사생활의 평온이 유지될 수 있도록 의료비 및 학자금 등을 지원하여 왔습니다. 인천지방검찰청 부천지청에서도 이에 동참하여 2009년부터 직원들이 자발적으로 십시일반 모금한 재원을 이용하여 생활고로 위기에 처한 범죄피해자 가족과 부서별로 1:1 결연을 맺는 캠페인인 ‘사랑의 손잡기 운동’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현재 형사부, 사건과, 집행과 등 4개 부서에서 경제적 상황이 열악한 범죄피해자 4가정과 각기 결연을 맺고 매월 20만원의 생계비를 지원하여 열악한 환경에서 범죄피해까지 겹쳐 힘겨워하는 가정에 경제적 가치 이상의 희망을 전달하고 있습니다.

주거환경개선



부천김포센터(이사장 이문성)에서는 열악한 주거환경에 처해있는 범죄피해자들의 주거환경을 개선하여 범죄로 인한 피해를 극복하고 원상회복하여 사생활의 평온 회복을 돕고자, 관내 사회복지기관과 연계하여 낡은 건물에서 수십 년을 거주한 저소득층 피해자 가정을 대상으로 2017년 9월 2일 주거환경개선사업을 실시하여 큰 호응을 받았습니다.

지역 사회단체 연계 피해자지원

부천김포센터(이사장 이문성)에서는 지역의 사회단체 및 민간기관 등에 센터의 역할과 실적 등을 홍보하고, 2017



년 9월 21일 부천 라이온스클럽 라면 50박스, 2017년 11월 7일 관내 사회복지법인 김치 10박스 50kg 등의 기부품을 범죄피해자 가정에 직접 전달하였습니다.

수원센터

범죄피해자 보호·지원제도 홍보 활성화를 위한 ‘대외협력위원회 창립’



수원센터(이사장 이순국)에서는 2017년 6월 13일, 수원 라메르아이에서 범죄피해자들에게 다양하고 폭넓은 지원이 이루어질 수 있는 기반 조성을 위해 대외협력위원회를 창립하였습니다. 대외협력위원회에서는 원활한 센터 운영 및 범죄피해자 보호·지원제도에 대해 정보를 접하지 못해 지원을 받지 못한 취약계층 범죄피해자들의 경제적·심리적 지원 및 조속한 사회 복귀를 위해 최선을 다할 계획입니다.

성남광주하남센터

「통합지원 네트워크」 운영평가회의 개최



성남광주하남센터(이사장 박봉용)에서는 2017년 11월 21일, 수원지방검찰청 성남지청 중회의실에서 ‘통합지원 네트워크’ 운영평가회의를 개최하였습니다. 성남광주하남센터는 2013년 4월 10일부터 4년간 「통합지원 네트워크」 협약 협조체계구축을 통해 범죄피해 발생 초기에 신속히 위기 상황에 개입하여 정신적, 신체적, 물

질적 피해에 필요한 지원을 제공함으로써 원스톱 회복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전문가의 심리치료 프로그램 확대, 멘토와 함께하는 자조모임 힐링캠프, 범죄피해자 「통합지원 네트워크」 운영실적 평가회 등으로 범죄피해자 피해회복에 도움을 주고 있으며 2017년 10월말 현재 총 1,026명 상담자 중 115명에게 생계비, 진료비, 간병비 등 총 1억 1,300만 원을 지원하였습니다.

여주이천양평센터

범죄피해자 물품지원



여주이천양평센터(이사장 임영헌)에서는 2017년 7월부터 9월까지 아동범죄피해자의 가정을 방문하여 생필품, TV, 선풍기, 옷, 신발 등 물품지원하여 격려와 위로의 계기가 되었습니다

전국 여성 장애인 범죄피해자 수용시설 ‘소빛’ 위문



여주이천양평센터(이사장 임영헌)에서는 2017년 9월 25일, 전국 여성 장애인 범죄피해자 수용 시설 ‘소빛’에 이사장, 지청장, 부장검사, 운영위원님들이 방문하여 피해자들을 위로하고 생필품을 전달하였습니다.

춘천센터

피해자가족과 센터위원의 ‘refreshing 함께해요 우리!’

힐링캠프

춘천센터(이사장 고평만)에서는 2017년 8월 15일, 일상에 벗어나 피해자 가족 13명과 센터위원 32명이 함께 인제내린천에서 래프팅을 즐기며 힐링의 시간을 가졌습니다.



이날 행사는 서로간의 협동심을 높이고 가족 간의 소중한 추억을 쌓은 의미 있는 시간을 가졌다는 호응 속에 캠프를 성공적으로 마쳤습니다.

강릉센터

사랑의 김장나눔



강릉센터(이사장 이상운)에서는 2017년 12월 6일, 강릉시 종합자원봉사센터에서 피해자를 위한 사랑의 김장나눔 행사를 진행하였습니다. 센터 자원봉사자들이 주축이 되어 강릉지청장과 사무과장, 담당검사가 참석한 가운데 김장을 만들어 강릉,

동해, 삼척 피해자 30가정에 각각 전달하여 따뜻한 겨울을 보낼 수 있도록 위로하였습니다.

해마다 정성 어린 양념에 직접 담은 김장을 받아본 피해자들은 복지사각지대에 놓인 본인들에게 큰 도움이 되었다며 감사의 마음을 표현하였습니다.

영월센터

2017년 범죄피해자가정 이웃돕기 ‘사랑의 연탄나눔’ 행사 영월센터(이사장 엄오섭)에서는 연말을 맞이하여 2017년 11월 23일, 범죄피해자가정 불우이웃돕기를 위한 ‘사랑의 연탄나눔’ 행사를 실시하였습니다. 이날 행사는 평창지구 위원과 함께 지역의 어려운 범죄피



해자 8가구를 방문하여 연탄배달에 참여하여 사랑의 봉사활동을 실시하였으며 피해자 가정의 어려움을 함께 소통하면서 아픔을 어루만져 주었습니다. 참석자들은 사각지대에 놓인 피해자들이 2017년 겨울은 어느 해보다 더 화사하고 따뜻한 겨울이 되길 바라며 범죄피해자 가정에 희망의 빛이 비추길 함께 기원하였습니다.

함께하는 치유프로그램 2017년 ‘힐링캠프’



가족 30명이 참가하여 힐링캠프를 개최하였습니다. 관내 피해자 및 피해자 가족들이 참여한 힐링캠프는 피해자들을 대상으로 하는 집단 상담 및 레크리에이션 등을 통해 피해자 및 가족들의 정서순화와 대인관계 개선을 통해 자존감을 향상시키는 기회를 제공하였습니다.

대전센터

2017 범죄피해자 위로의 밤



대전센터(이사장 이두식)와 대전지방검찰청은 2017년 12월 11일, 대전검찰청 10층 대회의실에서 설동호 대전광역시 교육감, 박희원 대전상공회의소 회장을 비롯한 관내 각

급기관장이 참석하여 ‘대전범죄피해자지원센터 2017 피해자 위로의 밤’ 행사를 개최하였습니다. 이 자리는 한 해를 돌아보며 범죄피해자를 위로하고, 센터의 발전을 위해 헌신한 유공자를 격려하고, 향후 발전방향을 모색하기 위한 자리로서 준비되었습니다.

위 행사에서는 피해자가정 22가구에 2,950만 원의 긴급생계비와 KB국민은행 대전·충남지역 영업그룹(대표 송인성)에서 생필품 각 25점씩을 전달하였습니다. 이외에도 대전상공회의소장이면서 (주)라이온컴텍 박희원 회장이 500만 원, 국제라이온스협회 356-B지구 젠트리그라이온스클럽에서 300만 원과 융합연합 한밭교류회에서 300만 원, 희망카페 사업단에서 300만 원의 성금을 기부하여 어느 해보다 피해자지원에 대한 관심과 지원이 활발하였습니다. 특히 희망카페 사업단에서 기부한 300만 원은 2012년 12월부터 개소한 3개소의 희망카페에서 피해자들이 취업하여 커피를 판매하여 얻은 수익금 중 희망카페 종사자보다 어려운 피해자에게 전해달라고 기부하여 훈훈한 미담이 되었습니다. 이어서 진행된 신규위원 위촉 및 그동안 센터의 발전을 위해 헌신한 유공자를 격려하고, 대전센터와 대전지방검찰청이 공동 개최한 제5회 범죄피해자 보호 및 지원을 위한 『글짓기 작품 공모전』 수상자들에게 시상하는 자리를 가졌습니다.

이번 ‘위로의 밤’ 행사에서는 피해자 지원에 대한 한 해의 발자취를 돌아보는 자리를 마련하고 향후 범죄피해자 지원을 위해 더욱 노력할 것을 다짐하는 뜻깊은 시간이 되었습니다.

논산센터

범죄피해자 자조모임 및 사랑의 빵 만들기



논산센터(이사장 신형철)에서는 2017년 11월 22일, 대한적십자봉사회 논산지구협의회에서 ‘범죄피해자 자조모임 및 사랑의 빵 만들기’ 행사를 진행하였습니다. 범죄피해의 아픔을 가진 범죄피해자 및 가족들이 체험

프로그램을 통해 마음의 문을 열고 서로의 상처를 치유하며, 사진 이후 일상생활에서 겪는 긴장과 외상후스트레스, 우울감 등을 해소하고 긍정적인 소통을 통해 심신의 안정을 도모하여 자신감을 회복하고 사회 구성원으로서 당당하게 살아갈 수 있는 기회가 되었습니다.

사랑나눔 바자회



논산센터(이사장 신형철)에서는 2017년 10월 19일 강경젓갈축제에서 사랑나눔 바자회를 실시하였습니다. 이날 행사는 강력범죄피해로 인해 정신적·육체적 피해를 입고 힘들어 하고 있는 범죄피해자들에게 사랑과 온정을 전달하기 위한 기금을 마련하기 위해 다양한 기부물품을 판매하는 의미있는 자리가 되었습니다.

서산센터

범죄피해자 통합지원 네트워크 회의 및 사례발표



서산센터(이사장 윤희창)에서는 2017년 12월 6일, 서산지청 소회의실에서 통합지원네트워크를 통해 범죄피해자지원사업 안내 및 피해자의 신속한 회복을 위한 자원 망 구축 및 지지체계의 정보 공유를 하고 사례에 대한 의견을 개진했습니다.

서산센터에서는 15년간 지적장애인 임금 착취 및 폭행 피해를 입은 피해자가 진로 탐색에 대한 욕구를 표현하여 취업지원비(바리스타 교육)를 지원하였고, 생계비 및 물품 지원 및 수시 전화 상담과 방문상담을 진행한 바 있습니다. 또한 15년 동안 억눌렸던 마음 치료 및 사회응용훈련을 위해 2박 3일 제주도 여행을 실비로 지원하였습니다. 추후 피해자의 주거지가 확정되는 대로 사회 복귀 시 공공부조 이외에 심리정서지원(가정방문 및 전화상담, 동료상담 연계), 사회적 관계 맺기(종교생활, 자조모임, 복지관 이용), 지역사회연계(취업알선, 장애인활동보조서비스, 중증장애인자립센터의 멘토링, 휴대폰 구입 및 요금 지원, 성교육 및 인권교육, 주택안전관리-가스 밸브 타이머지원, 응급 벨 지원)가 필요할 것이라는 의견이 개진되었습니다. 이후 사례 피해자들의 자립 시, 직업재활, 일상생활에 대하여 더욱 관심을 갖고 지원이 잘 수행되는지 지켜볼 수 있도록 서산센터에서 중심 역할을 지속적으로 이어 나갈 계획입니다.

제천단양센터

제천 명지병원과 범죄피해자지원기금 협약 체결



제천단양센터(이사장 장창식)는 2017년 9월 27일 청주지방검찰청 제천지청장실에서 제천 명지병원과 범죄피해자들을 돕기 위한 기부금 전달식을 가졌습니다. 청주지방검찰청 제천지청 양재혁 지청장, 임정빈 담당검사, 이시동 사무과장, 방창윤 명지병원 행정부원장이 참석한 가운데 이규식 사무처장의 안내로 제천지청에서 전달식을 개최하였습니다. 제천단양센터는 2012년도에 협약 체결을 한 바 있는 제천 명지병원은 범죄피해자들의 의료비를 50% 감면해 주는

등 지속적인 관심과 지원을 아끼지 않고 있습니다. 이날 범죄피해자 지원기금 전달식을 통하여 김용호 제천 명지병원장은 매년 범죄피해자지원기금 500만 원을 전달하기로 약속했습니다.

제천, 충주, 강원권(5개 센터) 합동 “아름다운 동행” 캠프 실시



제천단양센터(이사장 장창식)는 2017년 9월 14일~15일 1박 2일간 피해자들의 치유를 위한 힐링캠프를 개최했습니다. 이번 캠프는 제천센터, 충주센터를 비롯한 강원권(춘천, 원주, 속초, 강릉, 영월) 5개 센터와 합동으로 이루어졌습니다. 제천단양 이규식 사무처장의 안내로 청풍리 조트힐하우스에서 1박을 하며 청풍호 유람선 관광과 단양의 민물고기 수족관인 다누리아쿠아리움을 감상하고, 단양의 마늘정식으로 유명한 장다리식당에서 장창식 이사장, 임정빈 담당검사, 류인일 경찰행정학과 교수가 참석하여 피해자들을 위로하며 함께 만찬을 즐겼습니다. 장창식 이사장은 한방약초 선물세트 기념품을, 제천시청에서는 한방엑스포 기념품으로 치약세트, 단양경찰서에서는 휴대용물병을 기념품으로 전달하였고, 청풍문화재단지의 무료입장, 단양 아쿠아리움의 무료입장 등을 통해 관계기관의 관심을 알 수 있었습니다. 청풍리조트힐하우스에서 가정폭력, 성폭력 피해자 별로 심리전문가에 의한 집단상담을 통하여 피해자들의 아픔을 치유하며 레크레이션 전문 강사를 통하여 웃음과 함께 힐링하는 즐거운 시간을 가졌습니다. 아울러 가장 역사가 오래된 저수지로 유서 깊은 의림지를 찾아서 몇 백년 된 노송의 아름다운 자태를 감상하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그리고 한방 약초밥으로 유명한 대보명이 식당에서 오찬을 하면서 각 센터 사무처장, 주임, 피해자들은 헤어짐을 아쉬

워하며 제천단양에서의 아름다운 동행으로 힐링의 시간을 뜻깊게 마쳤습니다.

영동옥천센터

범죄피해가정 ‘1박 2일 힐링 캠프 프로그램 운영’



영동옥천센터(이사장 정완영)에서는 2017년 8월 7일~8일, 1박 2일간 힐링 캠프를 개최하였습니다. ‘1박 2일 체험 프로그램 운영’은 2015년부터 매년 1회씩 범죄 피해자 및 그 가족들과 함께 범죄피해에서 벗어나 가족들이 함께 재충전의 기회를 갖고 가족이 함께 보내는 시간이 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참가자들은 처음 보는 사이임에도 불구하고 마치 몇 년 전부터 알고 지내는 사이인 것처럼 화기에애한 분위기를 만들고 자연스럽게 다른 가족들과 함께 어울리는 등 범죄 피해의 기억 속으로부터 벗어나는 따뜻한 모습을 볼수 있었습니다.

세계인의 날 ‘범죄피해자 보호·지원 제도 홍보 부스 운영’



영동옥천센터(이사장 정완영)는 2017년 5월 20일, 영동읍 과일테마공원에서 세계인의 날을 맞아 ‘범죄피해자

보호·지원 제도 홍보 부스를 운영했습니다. 홍보부스 운영은 2007년 설립 이후 2008년부터 매년 2회씩 관할 지역 내 지역 축제 개최 시 ‘범죄피해자 보호·지원 홍보’ 활동으로 지역 내 소외될 수 있는 사각지대 피해자들을 발굴하고자 하는 목적으로 진행하고 있습니다. 센터 상담 자원봉사자 및 위원들과 함께 힘을 모아 축제를 찾아오는 군민들에게 법률상담 및 체험 프로그램을 운영하여 범죄피해자 발굴에 적극 참여하고 있습니다.

대구경북센터

대구예술대학교 예술치료학과 MOU 체결식 개최



대구경북센터(이사장 오순택)에서는 2017년 10월 30일, 대구지방검찰청 신관 7층 대회의실에서 대구예술

대학교 예술치료학과와 업무 협약식을 가졌습니다. 대구경북센터는 대구예술대학교 예술치료학과와의 MOU 체결을 통해 예술치료 전공 지식을 갖춘 대학생들과 함께 미술·음악·놀이치료 등을 통해 예술심리상담 지원에 활기를 더할 예정입니다. 또한 지역의 범죄피해자와 그 가족들에게 심리적 안정과 치유를 도와 범죄피해자의 피해 회복에 기여하고 조속한 일상 복귀에 도움을 줄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대구서부센터

추석맞이 범죄피해자 가정 생필품 전달 행사



대구서부센터(이사장 광성호)는 대구지방검찰청 서부지청과 2017년 9월 19일 추석을 앞두

고 범죄피해자 가정 50곳을 방문하여 쌀, 사과, 라면, 선물세트 등 추석선물을 전달하며 피해자 가족들을 위로, 격려하고 따뜻한 정을 나눌 수 있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이는 2008년 대구서부센터가 창립된 이후 현재까지 10년 동안 지속되어 온 사업으로 추석을 맞이하여 주위 사람들의 다소 들뜬 분위기와는 상반되게 범죄피해를 당하여 가족을 잃거나 아직 심적으로, 신체적으로 상처가 치유되지 않아 범죄피해의 아픔을 느끼는 피해자에게 다소 소외되기 쉬운 시기에 각 가정을 직접 방문하여 생필품을 전달함으로써 따뜻한 정을 나누고 위로함으로써 조금이나마 도움을 드리고 빠른 치유를 돕고자 진행하고 있습니다.

이날 피해자 가정까지 직접 방문한 조재연 서부검찰청 지청장은 피해자분의 법률적 문제 등 궁금한 사항에 대해서는 상담을 해 주었으며, 추가로 지원해줄 수 있는 분야가 있는지 확인하여 조치해주시기로 약속하였습니다.

또한 10년 동안 지속적으로 행사를 주최하여 진행해준 광성호 센터 이사장과 위원들에게 감사의 인사를 전하며 앞으로도 피해자를 위하여 애써주시기를 당부하였습니다.

범죄피해자와 함께하는 ‘희망을 여는 사랑의 한마당’
송년의 밤 행사



대구서부센터(이사장 광성호)는 2017년 12월 13일, 대구 지방검찰청 서부지청과 뉴대구호텔에서 범죄피해자 가정과 함께하는 송년의 밤 행사를 통해 위로와 격려의 자리를 마련하여 충격과 마음의 상처를 치유하고 피해 회복에 도움을 주고자 범죄피해자와 함께하는 ‘희망을 여는 사랑의 한마당’ 송년의 밤 행사를 가졌습니다.

이 날 행사에는 범죄피해자 및 가족 등 70여 명과 대구지방검찰청 조재연 서부지청장을 비롯하여, 심우정 차장검사, 김석우 형사1부장검사 등 서부검찰청 15명과 범죄피해자지원센터 광성호 이사장, 임원진, 위원, 대학생봉사단 등 80명 등 총 165명이 참석하였습니다.

이번 행사는 전문MC를 초빙하여 기타 연주 공연과 레크레이션 등을 통해 한 공간에서 범죄피해자와 서부검찰청과 센터가 한마음으로 잠시나마 웃을 수 있는 즐거운 시간이 되었으며, 한 해를 돌이켜보고 새로운 희망을 가질 수 있는 뜻깊은 자리가 되었습니다.

이날 행사에서는 이사진의 찬조를 통해 세탁기, LED TV, 청소기, 전기밥솥 등 다양한 경품을 준비하였으며, 경품권 추첨을 통하여 피해자 가족과 참석자들에게 나누어 주었으며, 참석한 모든 사람들이 박수로 축하하여 따뜻한 한

가족 같은 자리가 되었습니다. 참석한 모든 사람들은 끝나는 시간을 못내 아쉬워하며 내년에도 꼭 이런 자리가 마련될 수 있도록 바란다는 요청을 하였습니다.

경북북부센터

연중 기획 맞춤 서비스

독서치료 “토닥토닥 따뜻한 위로-책으로 마음을 치유”



경북북부센터(이사장 김해동)에서는 2017년 연중 기획 범죄피해자 심리치료프로그램으로 ‘독서치료’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먼저 범죄피해로 인해 심리·정서적으로 고통을 받으며, 잠 못 이루는 밤을 보내는 피해자 전 연령층을 대상으로 「빨강머리 앤이 하는 말」(백영옥)로 토닥토닥 따뜻한 위로를 건네며 4가지 발문주제를 제시하였습니다. 책을 읽으며 빨강머리 앤과 소통하고 즐거워하고, 때론 힘든 상황을 이겨내는 주인공을 보며 아파하고 지지하는 등 자신의 문제를 다루고 해결하는데 도움을 얻게 하고, 발문 주제에 따라 느낌과 생각을 적어보고 명장면을 그려보며 마음의 치유를 도왔습니다. 이 책에는 밝고 예쁜 그림들이 함께 있고, 읽는 이로 하여금 처음부터 끝까지 읽지 않고 중간 어디쯤부터 읽어도 좋을 만큼 부담 없이 읽을 수 있어 호응을 받았습니다. 20대에겐 짧은 글과 감성에 호소하는 그림으로 그래픽 에세이 「편안하고 사랑스럽고 그래」(퍼영)를 통해 힘든 날들을 위로받고 살아갈 힘을 얻게 하였습니다. 5~60대 이상은 「엄마 어렸을 적엔 이야기 시」(이승은·허헌선)를 통해 함께 공감하고 가난했지만 따뜻했던 지난날을 추억함으로써 우울증을 감소시키고 인지기능을 향상하도록 하였습니다. 피해자 중 한 분은 독서치료에 대해 “책을 선물 받는 그 자체가 기쁨이며, 발문 주제를 수행하며 심리적으로 안정되었고, 지금까지 아프고 힘들었던 자신을 괴롭히고 희생하는 바보스러운 시간을 줄였습니다. 또한, 의식적으로라도 밝고 긍정적으로 노력함으로써 나와 더불어 주변에 좋은 기운을 주는 사람으로 살아가고자 합니다” 라고 했습니다.

김해동 이사장은 누군가의 위로를 필요로 하는 사람들에게 책은 마음을 치유하는 힘을 주는 중요한 치료 도구이며, 발문주제에 따라 다양한 시도가 가능하다고 했습니다. 경북북부센터는 범죄피해를 겪었지만 하루 빨리 일상으로 돌아가길 바라는 피해자들의 마음을 헤아리는 고민을 계속할 계획이며, 앞으로도 다양한 콘텐츠로 피해자의 심리적 정서적 회복을 돕는 프로그램을 구상하고 있습니다.

경주센터

범죄피해가정 주거환경개선 지원



경주센터(이사장 이상춘)에서는 2007년부터 범죄피해자 및 그 유족들이 범죄로 입은 피해를 회복하고, 보다 쾌적하고 안전한 주거환경에서 사후적으로 발생할 수 있는 피해를 예방하여 정상적인 생활로 복귀할 수 있도록 주거환경 개선 지원 사업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2017년 9월 18일, 경북 경주시 감포읍에 거주하는 학교 폭력 피해 가정을 대상으로 주거환경개선 지원을 하였습니다. 이 가정의 경우에도 2007년 피해자지원 접수 후 10년간 지속적으로 가정방문 상담 등을 통해 애로사항을 파악하고 지원 관리하는 세대입니다. 지난해 경주 지진으로 인해 천장에 비가 새는 등의 피해를 입었지만 제대로 된 피해복구를 지원받지 못해 열악한 환경에서 생활하고 있는 사실을 파악하고 집수리 전문봉사단인 한마음봉사단과 협업해 천장 목공작업, 지붕 방수, 도배, 장판교체를 통해 안전성을 확보하고 보다 쾌적한 주거환경을 제공하였습니다. 경주센터는 앞으로도 피해자의 완전한 피해회복을 위해 늘 함께하는 기관으로 자리매김하도록 노력할 계획입니다.

경주모범운전자회 범죄피해자 보호·지원 업무협약



경주센터(이사장 이상춘)에서는 2017년 8월 8일, 범죄피해자 보호·지원 업무와 센터 홍보의 일환으로

경주모범운전자회와 업무협약을 체결하였습니다. 매일 수많은 승객들을 상대하는 직업 특성상 승객들과 소통하는 과정에서 피해자 지원 제도 및 센터를 홍보하고 안내할 수 있도록 협약식에 앞서 모범운전자 20명을 대상으로 범죄피해자 지원제도와 센터의 역할을 소개하는 자원봉사자 교육을 실시해 범죄피해자 보호·지원을 위해 달리는 홍보라인을 구축했습니다.

포항센터

범죄피해자지원 스마일 공익신탁 기탁



포항센터(이사장 나주영)는 2017년 7월 25일 어려움에 처해 좀 더 지원이 필요한 범죄피해자와 가족을 지

원하고자 출범한 ‘스마일 공익신탁’에 자체 회비 3,000만 원을 기탁했습니다.

이사장을 비롯한 회원들은 “지역의 경계를 넘어 범죄피해자지원센터 설립목적에 부합하고 범죄피해자 지원에 대한 국민적 관심과 기부문화 확산을 유도하는 매우 의미 있는 일”이라며 취지에 깊이 공감하고 기꺼이 참여하였습니다.

나주영 이사장은 누구나 갑작스러운 범죄피해로 인해 끔찍한 고통을 당할 수 있다고 하면서 피해자들의 어려움을 돕기 위해 늘 애쓰고 있지만 제도적 한계로 지원받지 못하는 피해자들에 대한 안타까움을 말하면서 범죄피해자와 그 가족을 돕는 일은 우리 국가와 사회가 책임져야 할 절대적 과제이므로 앞으로도 포항센터는 그 책임과 의무를 다할 것이라고 회원들을 대표하여 소회를 밝혔습니다.

김천구미센터

자조모임 희망 연합캠프

『아름다운 올림! 우리두리~한올림!』



김천구미센터(이사장 정근재)에서는 2017년 7월 22일과 7월 23일, 이화만리 녹색체험마을에서 성인과 청소년을 대상으로 자조모임 희망 연합캠프를 가졌습니다.

이번 연합캠프는 자연과의 만남 속에서 캠프활동과 체험을 통해 내재적인 자아를 발견하고 수용하며, 더불어 살아가는 타인에 대한 이해와 존중으로 공동체의 중요성을 깨닫고 함께 건강한 인격체로 성장·형성을 통해 미래지향적인 역량과 비전을 꿈꾸게 하고자 개최하였습니다.

또한 프로그램을 통하여 참된 나를 발견함과 동시에 자기 성장과 공동체의 중요성을 깨닫고 타인과의 관계형성을 유지해 갈 수 있는 힘이 생기도록 하였습니다. 그리고 구체적이고 현실적인 진로적성을 탐색 할 수 있도록 하며 세부적 목표를 세워 도전함으로 성취욕과 함께 당당히 세상에서 사는 사회인으로서 자질을 갖추도록 하였습니다.

2017년 「행복드림 네트워크」 통합지원 협의체 워크숍



2014년 「행복드림 네트워크」 통합지원 협의체 발대식을 시작으로 2017년 11월 25일, 김천지청에서 피해자에 대한 신속한 피해 회복 등 통합적·효과적 범죄피해자지원을 위한 워크숍을 가졌습니다.

이번 워크숍에는 검찰 및 경찰과 지역 네트워크 협약기관

34개 기관 대표자 및 담당 실무자가 참여하였습니다.

이날 행사에서는 지난 1년 동안 네트워크 경과보고와 피해자에 대한 사례발표가 이루어졌으며 행복드림 네트워크 구축으로 지역의 모든 범죄피해자 지원이 하나의 네트워크 체계 구축 및 유지를 통해 피해자에 대한 통합적 지원과 관리가 이루어질 수 있게 노력하고자 개최되었습니다.

상주문경예천센터

피해자지원 홍보활동



상주문경예천센터(이사장 황정환)는 2017년 9월 22일, 상주시 북천시민공원 '상주이야기축제'에서 센터 위원 및 자원봉사자, 상주경찰서와 함께 홍보활동을 실시하였습니다. 이날 행사에서는 축제장에 오는 시민들을 대상으로 피해자 보호·지원제도와 활동을 알리기 위해 리플렛과 홍보물을 배포하였습니다.

피해자지원 통합 사례회의 실시



상주문경예천센터(이사장 황정환)는 2017년 11월 6일, 문경경찰서와 함께 피해자 통합 사례회의를 개최하였습

니다.

2017년 연계된 피해자를 대상으로 사례관리를 통해, 욕구, 생활사적정보 등을 공유하여 원상회복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지원방안을 모색하였습니다.

의성군위청송센터

범죄피해아동<공감나들이>행사가저

“다독다독(多talk-多talk)”



의성군위청송센터(이사장 이재업)에서는 2017년 8월 17일, 의성경찰서와 함께 범죄피해아동들을 대상으로

“공감나들이 다독다독(多talk-多talk)”이라는 프로그램을 진행하였습니다. 신나는 나들이를 통해 서로 마음을 열고 센터 종사자, 피해아동간의 신뢰형성으로 맞춤형 해결책을 모색하고자 의성군 금성면에 위치한 조문국 박물관 문화체험교실, 물놀이 체험 등의 프로그램으로 세상과 마주할 수 있는 기회를 만들어 주어 피해아동의 심리적 안정감을 찾도록 도와주는 뜻깊은 행사를 개최하였습니다.

위기가정 관계향상캠프 진행

“우리가족의 새롭고 따뜻한 추억여행”



의성군위청송센터(이사장 이재업)에서는 2017년 10월 30일, 범죄피해 가족들을 대상으로 고유의 명절 추석을 보내기 전 “우리가족의 새롭고 따뜻한 추억여행”을 떠났습니다. 8가구 30명을 대상으로 대구시 소재 ‘힐크레스트’ 방문 및 쿠키 만들기, 음식나누기 등을 통해 가족과 함께 할

수 있는 다양한 프로그램과 체험을 공유하면서 가족 간의 화합과 심리적 안정을 돕는 행사를 통해 가졌습니다. 또한 캠프참여를 통해 위축되었던 가족의 소중함을 일깨우고 가족의 화합을 독려하여 어려운 환경을 극복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울산센터

범죄피해자 가족을 위한 ‘햇님 힐링캠프’



울산센터(이사장 손영재)에서는 2017년 11월 9일, 범죄피해의 아픔을 가진 범죄피해자와 가족 14명을 초청해

범죄피해자 및 가족의 심리적 안정도모를 위한 힐링캠프를 실시했습니다. 이번 힐링캠프는 범죄피해를 당한 이후 일상생활에서 겪는 긴장과 외상 후 스트레스, 우울감 등을 해소하고 긍정적인 소통을 통해 심신의 안정을 도모해 자신감을 회복하고 사회 구성원으로 당당하게 살아갈 수 있도록 돕기 위해 마련되었습니다. 서라벌요에서는 도자기에 직접 도안하여 마음을 표현하는 미술치료(도자기공예)와 문화해설사를 초청하여 경주 불국사, 동궁과월지 등 주요명승지를 둘러보는 순서로 진행되었습니다.

이날 행사에 참석한 피해자들은 사건 후 홀로 세상에 남겨져 있다는 불안감에 정신적으로 너무 힘들었으나 범죄피해자 자조 모임에 참가하면서 마음의 안정을 많이 찾았고, 내년에도 참가할 의사가 있다고 말하면서 캠프 관계자에게 감사의 뜻을 전하였습니다.

경남센터

추석맞이 범죄피해자가정 생필품 사랑나누기 행사 개최



경남센터(이사장 이상연)와 창원지방검찰청은 2017년 9월 27일 오전 11시, 창원지방검

찰청 3층 휴게실에서 센터 이상연 이사장, 창원지방검찰청 최현만 형사1부장검사, 임홍주 피해자지원 전담검사와 범죄피해자가 참석한 가운데 추석을 맞이하여 범죄피해자 30가구 가정에 848만 원 상당의 쌀과 라면, 김치, 과일 등 생필품을 전달하고 위로와 격려를 하였습니다. 경남센터에서는 2009년부터 매년 추석과 연말을 맞아 생활이 어려운 범죄피해자 415가구에 1억 3천여 만원 상당의 쌀과 라면, 김치, 과일 등 생필품을 전달하여 피해회복에 도움을 주고 있습니다.

또한 범죄피해자들에 대한 원상회복을 위한 경제적 지원 등으로 2005년 센터 설립 이후 539명의 범죄 피해자들에게 생계비(장례비 포함), 의료비(간병비 포함), 심리치료비, 장학금, 취업직업훈련비 등으로 총 14억 9,830여만 원을 지원한 바 있습니다.

진주센터

등불 하계수련회 개최

범죄피해자지원 필요성 인식, 위원 역량강화 도모



진주센터(이사장 구재홍) 등불에서는 2017년 7월 8일, 하동 화개 목통마을(야외)에서 장맛비가 내리는 가운데 하계수련회를 개최했습니다. 등불 하동지부가 주관한 이번 행사는 범죄피해자에 대한 보호와 지원의 필요성을 인식하고 위원 간 친목을 도모하여 역량을 강화하고자 마련되었습니다. 이 자리에는 윤상기 하동군수와 구재홍 등불 이사장 및 운영, 상담, 사법위원을 비롯하여 사천, 남해, 하동, 산청지부위원 130여 명과 범죄피해자와 그 가족 등 총 15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진행되었습니다. 식전행사로 경상대학교 해양경찰시스템학과 박상식 교수가 범죄피해자의 지위와 권리 및 등불위원의 역할에 대해 강의가 있었으

며 이어진 개회식에서는 내빈소개, 표창장 수여 및 피해자 선물전달, 축사 등의 순서로 진행되었습니다.

윤상기 군수는 등불의 따뜻한 보살핌은 범죄피해자와 그 가족들이 빠른 시일 내에 가정과 사회에 적응할 수 있는 큰 역할을 하고 있어 고맙다는 인사와 앞으로도 온정의 손길이 지속적으로 전해지기를 바란다는 뜻을 전했습니다.

그리고 구재홍 등불 이사장은 무더위임에도 내실 있는 수련회를 준비한 하동지부 위원들의 노고에 감사와 앞으로도 지역사회의 어두운 곳을 밝히는 등불이 되달라고 당부했습니다. 점심식사 후 열린 2부 행사에서는 위원들의 사기진작과 화합을 도모하기 위해 제기차기를 비롯하여 노래자랑, 경품추첨 등 다채로운 어울림 한마당이 펼쳐졌습니다.

범죄피해자 산림치유



진주센터(이사장 구재홍) 등불에서는 2017년 10월 27일, 신체적·정신적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피해자

들의 피해회복을 돕고자 산림치유 행사를 가졌습니다.

이날 산림치유 프로그램에는 상해피해자 등 피해자 24명과 자원봉사자 5명 등 29명이 참여하여 전남 장흥에 있는 편백숲 우드랜드에서 목공예 체험과 숲 해설가의 안내로 편백숲을 걸으면서 일상에서 지친 심신의 피로를 회복하였습니다. 방화피해자 A씨(59세)는 같은 처지에 있는 피해자들과 함께 좋은 곳을 구경하면서 즐거운 하루를 보내게 되어 기쁘며 정신적 고통을 회복하는데 크게 도움이 되었다고 했습니다.

한편 진주센터 구재홍 이사장은 피해자들에게 식료품류 선물을 전달하면서 “앞으로도 피해자 자조모임을 활성화하여 정서적으로 도움이 되는 프로그램을 지속적으로 발굴하여 시행하겠다”고 말했습니다.

통영거제고성센터

범죄피해자 안심 예찰단 결성

통영센터(이사장 장욱)에서는 2017년 12월, 캡스와 업무



를 돕기 위한 활동을 시작했습니다.

통영, 거제, 고성 각 지구마다 예찰단을 결성하여 캡스에서 출동차량 각 1대와 유단자 1명, 통영센터 지구 위원 중 봉사 희망자 2명을 한 팀으로 구성했습니다. 그리고 범죄피해자가 긴급 상황 발생 요청 시 긴급출동 및 평소에는 위험 신고가 되어있는 범죄피해 우려자의 가정주변을 월 2회 이상 관찰함으로써, 주변인들에게 경각심을 고취시켜 2차 보복 범죄를 차단하는 효과를 기대하고 있습니다. 센터에서는 이미 가해자의 보복이나 접근이 두려운 피해자 10여명의 신청을 받은 상태이며, 2018년 1월 1일부터 본격적인 활동을 시작할 예정입니다.

‘행복 찾기’ 치유프로그램 실시



해자와 장기입원환자, 간호사를 대상으로 '원에 심리치유 프로그램, 행복찾기'를 실시하였습니다.

이번 프로그램 진행에는 센터의 전문상담위원 10명이 3조로 나뉘어 프로그램 진행자로 봉사했고 프로그램에 참석한 피해자와 환자들은 병원에서 치료를 받으며 답답했던 마음이 싱그러운 식물을 만지면서 새로운 에너지를 얻는 시간이었다고 하며 앞으로도 이런 프로그램을 진행한다면 꼭 참여하고 싶다고 말했습니다.

이러한 활동은 범죄피해자와 환자 외에도 병원 직원이나 외부인에게 센터에 대한 긍정적인 인식을 전파하고, 피해자 치료비 감면에 적극 응해주는 협력병원을 위한 센터로서의 작은 보답이라는 의미에서 매우 뜻깊은 기회였다고 평가하고 있습니다.

밀양창녕센터

범죄피해자들이 만들어가는 자조모임 ‘꽃길로’



밀양창녕센터(이사장 심재극)에서는 2016년부터 2017년 현재까지 격월 1회의 주기로 범죄피해자들이 만들어

가는 자조모임 ‘꽃길로’를 개최하여 피해자들의 심리적 안정을 돕고 있습니다.

나만의 공예품 만들기, 한국 전통음식 만들기 체험, 나를 찾는 숲길 여행 등 참석자들이 다음 모임을 기대할 수 있도록 피해자들의 의견을 적극적으로 반영하고 다양한 활동 프로그램을 개발하여 피해자들이 모임의 주인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하고 있습니다. 특히, 시간과 정성을 들여 만든 피해자들의 공예품을 연말 밀양창녕 범죄피해자 인권대회에 전시해 피해자들의 작품을 공개함으로써 범죄피해의 트라우마를 겪은 피해자들의 아픔을 공감하고 이를 이겨내는 치유의 과정을 함께 생각해보는 의미있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거창센터

통합지원 네트워크 협약기관 실무자 간담회 개최



거창센터(이사장 최순탁)에서는 2017년 11월 30일, 거창지검 2층 대회의실에서 통합지원 네트워크 협약기관 실무자 간담회를 개최하였습니다. 이번 간담회에는 지청장, 검사, 사무과장, 사건계장, 센터 이사장 등을 비롯한 담당자 19명이 참석하였습니다.

거창센터에서는 2014년 8월, 센터 주관으로 통합지원 네트워크 구축 후 매년 정기적으로 실무자 간담회를 개최하여 현장에서의 피해자 지원에 있어 개선 및 보완해야 할 문제와 연계지원 현황 및 지원사례 등을 발표하며 많은 정보 공유로 피해자에게 실질적인 도움이 되는 방안을 모색하고 있습니다.

광주전남센터

범죄피해자를 위한 ‘사랑의 김장나누기’ 행사



를 진행하였습니다.

사랑의 김장나누기 행사는 김장철을 맞아 경제적으로 어려운 범죄피해자 가구를 선정해 직접 담근 김장김치를 전달하여 피해자와 따뜻한 나눔의 정을 함께 하기 위해 기획한 연례행사로 2008년부터 매년 실시하고 있습니다. 올해는 300포기를 김장하여 범죄피해자 110가구에 전달하여 겨울철 훈훈한 정을 함께 나눴습니다.

마산합안의령센터

제10회 한국범죄피해자 인권대회 표창 수상



자 인권대회에서 윤태석 이사장이 국무총리 표창, 김종식 사무처장이 법무부장관 표창을 수상했습니다. 마산합안의령센터 윤태석 이사장은 2011년 센터 설립을 시작으로 범죄피해자들을 위해 개인사비로 2억 원 상당의 기부를 하며 범죄피해의 보호·지원에 앞장서고 있으며, 김

종식 사무처장도 지역 내 유관기관들과 함께 범죄피해자들을 위해 컨트롤타워 역할을 하며 노력해 왔습니다. 마산합안의령센터는 앞으로도 범죄피해자 발굴 및 신속한 지원을 위해 앞장설 계획입니다.

목포센터

범죄피해자 가정 주거환경개선 지원



범죄피해자 가정을 위해 주거환경개선 지원을 실시하였습니다. 낡은 천정과 벽, 장판, 창문, 보일러를 교체하고 침대, 옷장, 책상과 의자를 신제품으로 반입하였으며, 건물 외벽 페인팅 등 1,000여만 원을 지원하여 쾌적한 환경으로 바꾸어주었습니다.

이번 주거환경개선 지원 사업은 목포지청 관내 범죄피해자 가정 중 주거환경이 매우 열악한 가정을 파악하고 쾌적한 환경으로 개선 지원하여 피해자 가족에게 심리적 안정을 도모하고자 추진하였습니다. 목포지청에서는 치료비 지원, 목포한국병원에서는 재능기부, 센터에서는 시설개선, 목포시 지부에서는 가재도구, 보호관찰소에서는 인력 지원 등 통합지원네트워크 연계기관 단체가 참여하여 지원 봉사를 하였습니다.

목포센터에서는 앞으로도 주거환경개선사업 등을 지속적으로 실시해 신속한 피해 회복을 위해 통합지원네트워크를 통해 다양하고 적절한 연계지원을 실시할 계획입니다.

목포지청 관할 통합지원네트워크협의회 선상워크숍 개최



목 포 센 터 (이 사 장 이 혁 영) 에 서 는 2017년 11월 17~18일 크루즈 호 및 제주도에서 범죄피해자가 피해

를 회복하여 실질적, 효율적으로 사회에 조기 복귀할 수 있도록 통합적인 피해회복 지원체계 구축 협의체인 목포지청 관할 통합지원네트워크 2017년 하반기 협의회 워크숍을 가졌습니다. 이번 워크숍은 목포지청과 목포센터 주관과 후원으로 연계기관 단체장 및 관계자 등 15명이 함께한 가운데 진행되었습니다. 이 날 선상 워크숍은 상호토론을 통하여 범죄피해자지원에 대한 현실적 문제점을 살펴보고 개선방향을 모색하는 등 의미 있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또한 통합지원네트워크 연계기관 단체장 및 종사자들이 당면한 문제에서 잠시 떠나 휴식을 취하면서 집단지성 활성화와 상호결속력을 강화하고 충분히 재충전하여 현장에 다시 돌아와 새로운 활력을 찾아 일할 수 있도록 이혁영 이사장이 프로그램을 제안하고 후원 지원하였습니다.

장흥강진센터

연말 김장김치봉사 범죄피해자 가정 위문



이날 행사는 광주지방검찰청 장흥지청 박영진 청장을 비롯하여 김성 장흥군수와 장흥강진센터 김명환 이사장 및 위원들이 함께 참여하여 김장김치 담그기 행사를 가졌습니다. 범죄피해로부터 어려움을 겪고 있는 피해자들에게 광주지방검찰청 장흥지청 박영진 청장과 장흥강진센터 김명환 이사장이 직접 집으로 찾아가 위로와 격려의 말을 전하면서 장흥·강진지역 30여명의 피해자 가족에게 김장김치를 전달하였습니다.

장흥강진센터(이사장 김명환)에서는 2017년 12월 4일, 범죄피해로부터 어려움을 겪고 있는 피해자들과 그 가족들을 위해 장흥군민회관에서 김장 김치를 직접 담가 지원하는 봉사활동을 가졌습니다.

전남동부센터

청소년 피해자지원을 위한 업무협약 체결식



전남동부센터(이사장 정웅길)에서는 2017년 8월 10일, 광주지방검찰청 순천지청 중회의실에서 청소년 피해자 지원을 위한 업무협약 체결식을 가졌습니다. 이번 체결식은 범죄피해 청소년들이 심리적 안정과 트라우마를 극복할 수 있도록 과학적 정보와 기술을 보유한 기관단체와 업무협약을 체결하였으며, 맞춤형 “코딩교육”실시로 심리치유와 향후 진로결정에 도움을 줄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체결식에는 순천대학교 산학협력단과 와이테크가 함께 하여주었으며, 8명을 대상으로 매회 개인별로 20만 원씩 지원할 예정입니다.

주거환경개선 집수리봉사



전남동부센터(이사장 정웅길)에서는 2017년 11월 20~24일까지 취객에 의한 폭행으로 택시 운전을 할 수 없게 된 피해자의 집을 수리해 주었습니다. 이번 집수리는 IG화화 여수공장의 후원으로 진행되었으며, 주거지인 슬라브 집이 누수가 심하여 1,015만원을 들여 우레탄 방수 시공과 샷시교체, 건물도색, 대문보수 등을 실시하였습니다. 봉사에는 순천지청과 전남동부센터 위원들이 자원봉사자로 함께 참여 하였으며 순천지청장은 금일봉을 전달하고 센터 여수지부에서는 위문품을 준비하여 피해자가정을 위로하였습니다.

전주센터

범죄피해자 부모대상 집단프로그램 ‘행복씨앗 감정코칭’



전 주 센 터 (이 사 장 홍종길)에서는 2017년 9월 1일부터 10월 27일까지 매주 금요일마다 전주스마일센터 세

미나실에서 강력범죄피해자 12가족을 대상으로 범죄피해자 부모대상 집단프로그램 ‘행복씨앗 감정코칭’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이 프로그램은 2013년도부터 범죄피해자 가족 및 부모 대상으로 진행하였으며, 올해로 7회째를 맞이하였습니다. 범죄피해자 가족들은 범죄피해 발생 후 그 후 유증으로 대화 단절 등 가정에 위기가 닥치고 가정이 파탄 되는 상황을 맞기도 하는데 그 위기상황을 잘 극복할 수 있도록 자녀와 부모 간, 부부 간, 피해자 간, 주변사람과의 대인관계 회복 프로그램을 실시하였습니다.

이번 프로그램은 회복탄력성 키우기, 호감과 존중의 문화 만들기, 관계를 망치는 네 가지 독과 해독제, 마음을 여는 대화 등 교육과 실습 등을 진행하였습니다.

군산익산센터

자아존중감 향상을 위한 가족미술치료



군산익산센터(이사장 김원요)에서는 2017년 8월 7일부터 11월 21일까지 (매주 화요일), 총 15회기에 걸쳐 군

산시 배달강좌로 강사와 프로그램을 후원받아 15명의 피해자들에게 가족미술치료를 실시하였습니다.

난화를 통한 친밀감 형성, 자기 에너지 보기, 만다라를 통한 심리진단 및 치료, 종이 공을 만들어 보면서 분노조절 및 정서적 안정감을 도모하고, 손가락을 그려 들고 싶은 말과 상처가 되었던 말을 써보고, 인생 곡선도 그려보고 막대인형 콜라주를 만들어 역할극을 해보기도 하였으며,

자기진로 및 방향설정을 해보고, 마지막 회기에는 자기 주변에 고맙고 미안했던 사람에게 편지를 써보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강사는 회기마다 다른 주제를 가지고 여러 가지를 그리고 만들어 보게 하면서 안에 있지만, 평소 인지하지 못했던 것들을 도출해 주었습니다. 그로 인해 마음이 따뜻해지기도 하고, 위로를 받기도 하였고, 행복과 자신감을 얻었으며, 자신이 리더 같다고 자신 있게 말할 수 있다는 피해자도 있었습니다. 피해자들은 처음에는 그리거나 만든다는 것에 어려움을 느꼈으나 서로 도와주고 완성해 나가면서 함께한 사람들과 친밀감을 느끼고, 어린 시절 훈훈했던 기억, 내가 추구했던 가치와 꿈들을 다시금 되새겨 보며 앞으로의 진로와 방향을 설정하는데 도움을 받았다는 소감을 들을 수 있었습니다.

마지막 프로그램 종료 후에는 성실하게 참여한 피해자들에게 성취감을 느끼도록 수료증을 수여하기도 했습니다.

정읍센터

2017년도 ‘희망나들이 1박 2일 힐링캠프’



정읍센터(이사장 김진태)에서는 2017년 10월 26~27일, 1박 2일간 제주도 희망나들이 힐링캠프에 참석하였습니다. 힐링캠프에는 호남·제주 권역 센터 전문가 20명, 범죄피해자 58명 등 총 80여 명이 참석하였습니다. 힐링캠프를 통하여 범죄피해자들의 무겁고 지친 몸과 마음을 치유하고, 자존감을 회복하여 스스로 힘을 기를 수 있도록 하며, 서로 격려할 수 있도록 기회를 제공하였습니다.

정읍센터에서 피해자 5명과 센터직원(종사자) 2명이 참석해서 자존감을 회복하고, 몸과 마음을 재충전하는 좋은 기회를 만들었습니다.

또한 정읍센터에서는 피해자 자모모임을 통해 어려움을 공유하고 서로를 격려하면서 희망과 용기를 얻게되는 시간을 만들고 있습니다.

남원센터

희망을 드려요! 사랑의 집수리 봉사활동 구슬땀



남원센터(이사장 광성주)와 전주지방검찰청 남원지청은 2017년 11월 7일, 서정식 지청장을 비롯한 검찰간

부와 남원센터회원 등 20여 명이 참여하여 장수군 소재 피해자 가옥에 대한 사랑의 집수리 봉사활동을 펼쳤습니다. 이번에 말끔히 단장된 김씨 가정은 어린 3자녀와 함께 생활하는 저소득 층 한부모 다문화 가정으로 오래된 창문과 환기조차 제대로 되지 않는 비좁은 공간에서 4명의 식구가 비위생적인 생활로 주택에 대한 환경 개선이 시급하였으나 여러 가지 경제적인 어려움으로 인해 스스로 주거환경을 개선할 수 없어 어려운 생활을 하고 있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남원센터와 남원지청이 주거환경개선사업의 일환으로 추진하는 사랑의 집수리 봉사활동을 통해 보다 안전하고, 보다 깨끗한 환경에서 생활하기에 편리한 주택으로 말끔히 개선하였습니다.

이날 위원들과 함께 봉사활동에 나선 서정식 지청장은 우리 주위에 아직도 이렇게 열악한 환경에서 생활하는 어려운 이웃들이 너무도 많다고 하면서 더 많은 관심과 사랑으로 찾아서 봉사하고 지원하는 지역사회 분위기를 만들어 가자고 당부하였습니다. 이어 남원센터 광성주 이사장도 사랑의 집수리 봉사활동을 통해서 피해자 가족들이 하루 빨리 안정을 찾아 평온한 일상으로 되돌아가기를 기대한다고 소감을 밝혔습니다.

제주센터

범죄피해자를 위한 도어 투 도어 법정동행 경호서비스

시행

제주센터(이사장 강재업)와 제주지방검찰청은 2017년 11월 24일, 증인으로 출석하는 범죄피해자를 보복범죄로부터 보호하기 위한 ‘도어 투 도어(door to door) 법정동행 경호서비스’를 시행하기 위하여 제주센터 경호지원분과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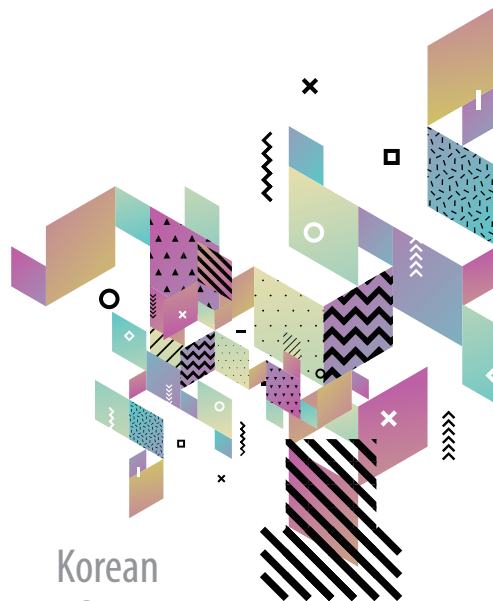
원회를 개최하였습

니다. 경호지원분과위원회는 합기도 관장 등 12명의 무술 유단자들로 구성되어

있으며, 검찰 또는 범죄피해자들의 요청에 따라 경호서비스 자원봉사활동에 나서고 있습니다.

특히 제주지검에서는 제주센터와의 협조를 통해 피해자에게 ‘door to door 법정동행 경호서비스’를 제공하기로 했습니다. ‘door to door 법정동행 경호서비스’는 무술유단자들로 구성된 경호지원분과위원이 출발장소부터 법정까지 피해자를 보호하고, 증인이 끝날 때까지 대기하다가 다시 법정부터 주거지 등 원하는 장소까지 피해자를 경호하며 안전하게 귀가를 돕는 서비스입니다.

손우창 3부장은 법정동행 경호서비스를 통해 범죄피해자에 대한 보복범죄를 예방하고, 피해자가 걱정 없이 법정에서 진술 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할 방침이라고 하면서 범죄피해자가 아니라도 보복범죄의 우려가 있는 제보자 등에 대해서도 서비스를 확대 할 계획이라고 설명했습니다. 🌟



Korean
Crime
Vitims Support
Associaition

간병비 등 부대비용

현재 「범죄피해자보호법」 제7조, 법무부 예규 「국고보조금 교부·관리 및 집행지침」, 「범죄피해자지원센터 범죄피해자지원심의회의운영규정」을 근거 법령으로 전국 범죄피해자지원센터에서는 간병비 등 부대비용(간병비, 요양병원비, 부대비용)을 2014년도부터 지원하고 있습니다.

의의 및 목적

입원 피해자의 신체적 피해회복과 가족의 생업 상 어려움을 예방하여 피해복구 촉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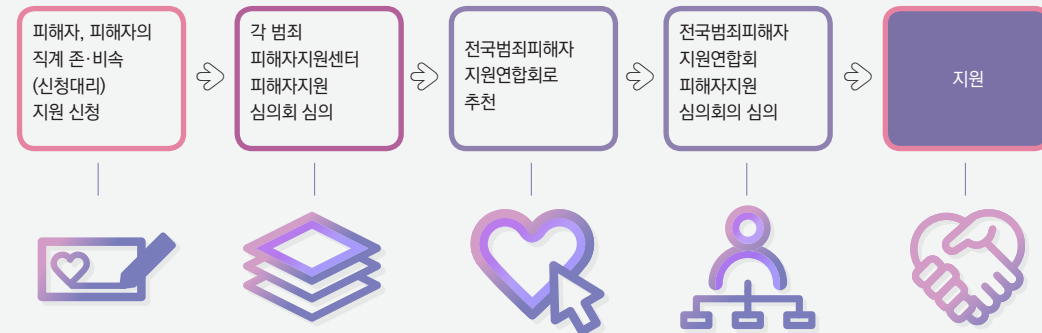
지원대상

- 범죄피해자가 신체적·정신적 피해로 인하여 요양 병원의 입원치료를 받은 경우
- 범죄피해자가 입원하는 동안 간병할 가족이 없거나, 가족이 간병에 나설 경우 생계·양육·교육 등에 현저한 지장이 발생하여 간병인에 의한 간병이 필요한 경우

지원내용

- 간병인에 의한 간병비
 - 1일 24시간 기준 8만 원/12시간 6만 원 한도(1회 신청액 3백만 원 한도), 총 1,500 만 원 한도
(초과 시 전국범죄피해자지원연합회 특별결의 대상)
- 요양병원 입원치료비
 - 범죄피해자가 요양병원에 입원하여 치료 및 요양병원의 공동간병을 받은 경우 입원치료비와 간병비를 합산하여 1일 4만 원 내 지원하되, 1인 간병을 받을 수밖에 없는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1일 8만원 내 지원
 - 총 5천만 원 한도(초과 시 전국범죄피해자지원연합회 특별결의 대상)

지원절차



신청문의

전국 범죄피해자지원센터 ☎ 1577-1295, www.kcva.or.kr

돌봄비용 신설

기존 「범죄피해자보호법」 제7조, 법무부 예규 「국고보조금 교부·관리 및 집행지침」, 「범죄피해자지원센터 범죄피해자 지원심의회의운영규정」을 근거 법령으로 제정된 간병비등 부대비용(간병비, 요양병원비, 부대비용)지원 사업의 일환으로 가족의 돌봄을 받기 어려운 13세 미만의 범죄피해 아동에 대한 돌봄비용이 금번 추가 신설되었습니다.

지원대상

- 아래 요건 중의 하나에 해당하면서, 가족의 돌봄을 받기 어려운 경우 지원
 - 13세 미만의 범죄피해 아동
 - 범죄피해를 입은 자의 13세 미만의 자녀

지원내용

- 지원기준
 - 돌봄서비스 이용 시(민간베이비시터, 아이돌봄서비스, 활동보조인 등) 자부담 비용분에 대해 지원
※돌보미는 돌봄 서비스에 관한 소정의 교육을 받은 자를 원칙으로 함(가족 제외)
 - 돌봄비용의 시간당 단가는 7~8천 원을 기준으로 하되 조정 가능
 - 여성가족부 아이돌봄서비스, 보건복지부 사회복지서비스 등 정부지원 서비스를 이용하고 있는 경우, 지원받고 있는 부분을 제외한 본인 자부담액에 대해서만 지원함(중복지급이 확인될 경우 환수 가능)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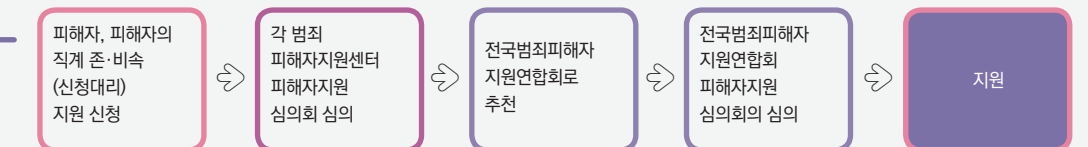
지원한도

- 원칙적으로 최장 6개월 이내, 추가로 12개월 연장 가능(최장 18개월)
- 원칙적으로 최대 3백만 원 한도, 추가로 6백만 원 지원 가능(최대 900만 원)

지급방식

- 1인당 지원 누계액 300만 원 이하 : 전국범죄피해자지원연합회 검토 후 지원
- 1인당 지원 누계액 300만 원 초과 : 전국범죄피해자지원연합회 특별결의 후 지원
- 6개월(3백만 원 한도) 범위 안에서 2차에 걸쳐 연장 신청이 가능하며, 피해아동의 피해정도, 평소 생계곤란 여부(기초생활수급자, 조손가족, 한부모 가족 등), 일상생활 복귀곤란 여부(의사 소견서 등)을 고려하여 지원 연장을 결정함

지원방법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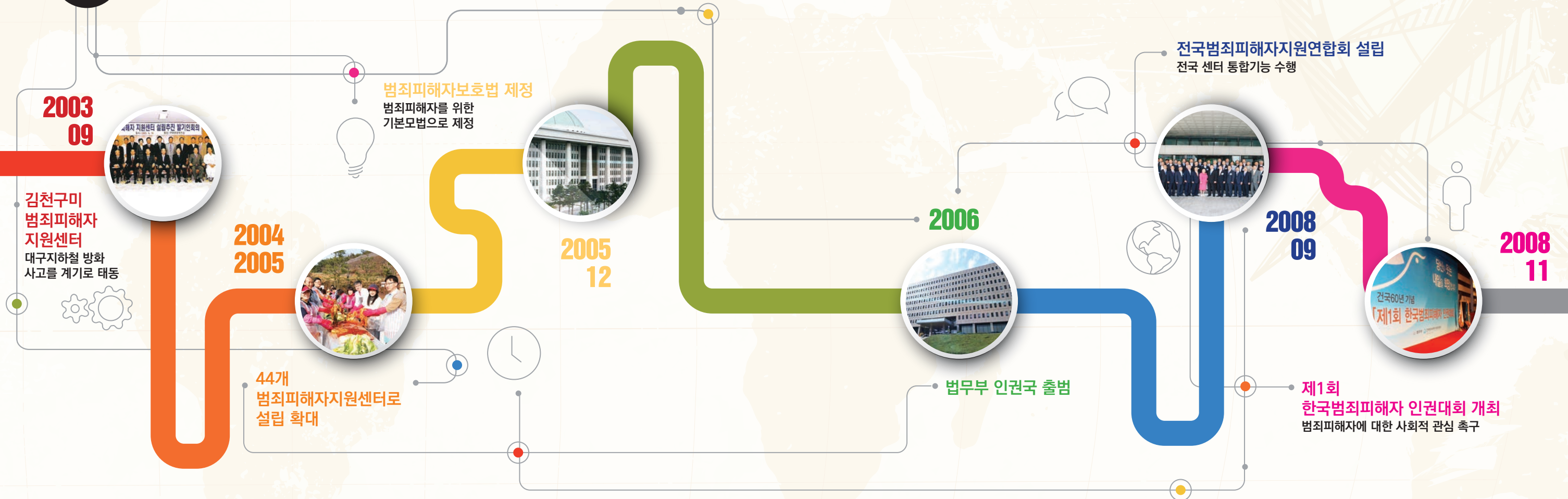
신청문의

전국 범죄피해자지원센터 ☎ 1577-1295, www.kcva.or.kr

연혁

history

최근 회자되고 있는 “기회는 평등하고 과정은 공정하며 결과는 정의로롭다”는 말처럼 본격적으로 인권의 시대를 열면서 범죄피해자의 인권과 보호·지원에 대한 관심이 새롭게 대두된 바 있다. 특히 범죄피해자 권리 선언을 채택하고 범죄피해자에 대한 사회적 관심과 함께 종사자 및 자원봉사자의 역량결집과 자기진작을 위해 시작된 한국범죄피해자 인권대회를 개최한지 10주년을 맞으면서 분주하게 지나온 시간을 되돌아보고 새로운 다짐을 하는 것은 그 의미가 크다고 할 수 있을 것이다. 어려움 속에서도 범죄피해자 보호·지원이라는 국가적, 사회적 책임을 다하기 위해 함께 노력했던 지난 시간을 되돌아본다.



김천구미 범죄피해자지원센터 발족

2003. 2. 18 대구 도시철도 1호선 중앙로역에서 총 192명의 사망자와 21명의 실종자가 발생한 대구 지하철 참사사고를 계기로 최초로 2003. 9월 김천구미 범죄피해자지원센터가 설립되었다. 현재 전국범죄피해자지원연합회와 59개 전국 범죄피해자지원센터의 태동이 된 김천구미 범죄피해자지원센터는 기본적인 피해자지원사업 뿐 아니라 2009년도부터 동병상련의 피해자로 구성된 3개 그룹의 자조모임을 통해 스스로 치유하고 회복할 수 있는 계기를 만드는데 노력하여 이 시간까지 나침반의 역할을 충실히 수행하고 있다.

44개 범죄피해자지원센터로 설립 확대

범죄피해자지원센터는 2003. 9월 김천구미에서 민간 차원의 주도로 설립되었고 이후 법무부가 추진이 본격화 되었다. 이를 계기로 빠른 기간 내에 전국적으로 범죄피해자지원센터가 확대 설립되어 관할 지역별로 범죄피해자 지원을 위한 범죄피해자지원센터가 발족하게 되어 민간단체만이 할 수 있는 피해자에 대한 장기적 케어 및 지원의 중심 역할을 충실히 수행하고 있다.

범죄피해자 보호법 제정

범죄피해자에 대한 권리장전이라고 일컬어지는 범죄피해자를 위한 기본 모범으로 2005. 12월 범죄피해자 보호법이 제정되었다. 범죄피해자 보호법은 범죄행위로 인해 생명, 신체, 재산의 피해를 받은 국민에 대한 국가의 구조의무를 명시하고 범죄피해자에 대한 국가차원의 보호 체계 구축과 민간 활동을 촉진하는 종합적이고 효과적인 대책 마련을 위해 제정되었다. 범죄피해자 보호법은 그간 여건과 환경에 맞는 내용으로 개정 과정을 거쳐 오늘에 이른바 있다.

법무부 인권국 출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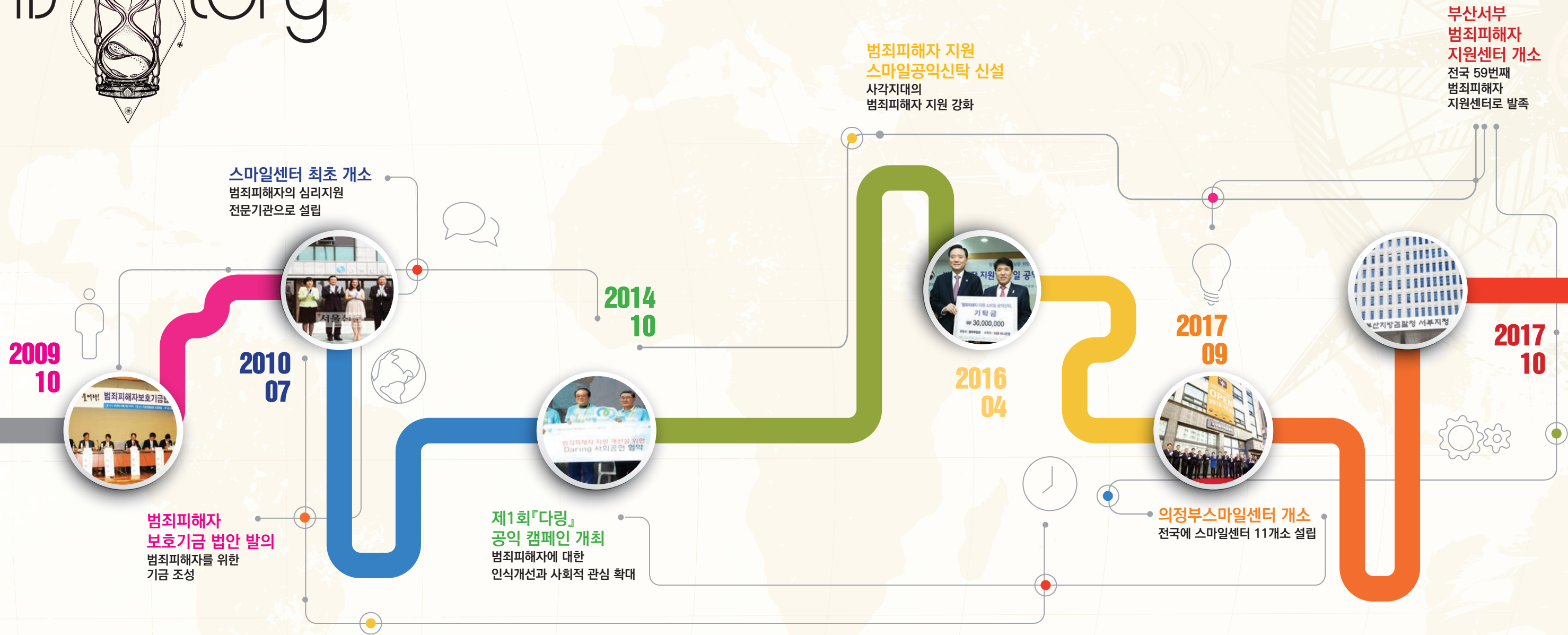
2005. 5월 법무부 정책위원회에서 인권국을 신설 의결하였고, 2006. 5월 법무부 인권국이 출범하게 되었다. 그간 법무부 인권국은 범죄피해자 보호·지원 업무 및 인권 관련 정책, 법무 행정 분야의 인권 침해 예방과 제도 개선, 여성아동 관련 정책 수립 등에 노력해오고 있고, 현재 인권정책과, 인권구조과, 인권조사과, 여성아동인권과 4개 부서로 구성되어 있다.

전국범죄피해자지원연합회 설립

전국 범죄피해자지원센터를 총괄하고 취합 기능, 원활한 의견수렴과 제도 개선, 전국 행사 등을 주관하는 조직의 필요성에 따라 2009. 9월 전국범죄피해자지원연합회가 설립되었다. 전국범죄피해자지원연합회는 범죄피해자 인권대회, 다링(DaRing) 공익 캠페인 등 전국 행사는 물론 피해자지원시스템, 통합 홈페이지 구축, 한국피해자지원연구소 설립 등을 추진한 바 있고 환경 변화에 따라 범죄피해자지원의 중추기관으로서의 선도적인 역할과 기능의 중요성이 요구되고 있다.

제1회 한국범죄피해자 인권대회 개최

전국범죄피해자지원연합회가 설립된 지 불과 한 달밖에 안된 시점에서 많은 분들의 참여와 열정으로 제1회 한국범죄피해자 인권대회가 개최되었다. 그간 범죄피해자에 대한 권리선언과 함께 사회적 관심을 촉구하는 대표행사로써 피해자 체험수기 등을 통해 가슴 절절한 피해자의 사연을 듣는 순서로 매년 진한 감동을 주고 있으며 범죄피해자 보호·지원 유공자에 대한 표창 시상으로 격려의 장을 만들고 있다.



범죄피해자 보호기금 법안 발의

범죄피해자 지원 체계 정립을 위해 연합회와 전국 센터가 참여하고 박민식 의원이 대표 발의한 범죄피해자 보호기금법이 공청회를 거쳐 국회에서 여야 의원 103명 공동 발의로 압도적 찬성으로 통과되었다. 돈의 문제가 아니고 인권의 문제라는 차원에서 시작되었기에 더 큰 의미를 갖는 범죄피해자 보호기금은 향후 지속적인 확대를 통해 범죄피해자 지원의 원천이 될 것으로 기대되고 있다.

스마일센터 최초 개소

국내 최초로 범죄피해 트라우마에 시달리는 피해자에게 상담과 심리치유 프로그램 및 임시 주거시설을 운영하는 스마일센터가 2010. 7. 1 서울 풍납동에 최초로 개소(현 서울동부 스마일센터)되었다. 심리적 심층 지원이 절실한 피해자를 위한 맞춤형 지원기관으로 설립된 스마일센터는 현재 11개 지역으로 확대되어 운영 중에 있다.

제1회 “다링” 공익 캠페인 개최

범죄피해자에 대한 인식 개선을 위해 안전과 안심을 경영 목표로 하고 있는 에스원과 전국범죄피해자지원연합회가 “다링(DaRing)” 공익 캠페인 행사를 매년 개최하고 있다. 걷기대회, 홍보부스 운영, 피해자 수기 등을 통해 기업과 민간단체가 주최하는 전국 규모의 범죄피해자 지원 공익 캠페인으로 올해 네 번째 행사로 자리매김하고 있다.

범죄피해자 지원 스마일 공익신탁 신설

재정적 한계 등으로 보호의 사각지대에 놓인 범죄피해자를 위해 2016. 4월 스마일 공익신탁이 설립되었다. 투명하고 체계화된 기부문화 정착을 위해 설립된 스마일 공익신탁은 다문화 가정에서의 학대 피해 아동 등에게 생계비를 지급하는 등 소외된 계층에 대한 지속적인 지원을 제공하고 있어 피해자의 일상복귀 및 회복을 위한 제도로 정착되고 있다.

의정부 스마일센터 개소

서울 풍납동에서 시작된 현재의 서울동부 스마일센터를 시작으로 2017. 9월 방대한 경기북부지역의 범죄피해 트라우마 피해자를 위해 의정부 스마일센터가 새롭게 문을 열었다. 이로써 2010. 7월 최초로 스마일센터가 개소한 이후 현재 전국에 11개소의 스마일센터가 설립된 바 있다.

부산서부 범죄피해자지원센터 개소

범죄피해자지원센터로는 59번째로 부산 5개구(강서구, 사상구, 사하구, 북구, 서구)를 관할하는 부산서부 범죄피해자지원센터가 2017. 10월 새롭게 발족했다. 부산서부 범죄피해자지원센터는 그간 전국 센터의 연륜과 경험을 기반으로 많은 관심 속에 범죄피해자 지원을 위한 지역의 중추기관으로 성장 발전할 것으로 기대되고 있다.

흔히 “하늘은 스스로 돕는자를 돕는다”고 이야기 합니다. 즉 “하늘은 스스로 노력하는 자를 돕는다”는 뜻입니다. 이 말은 고통과 어려움 속에서 일상으로의 회복을 갈망하는 범죄피해자에게 가장 적절한 메시지라고 할 수 있을 것입니다. 전국 범죄피해자지원센터에서는 피해자 지원도 물론 중요하지만 자조모임이라고 일컬어지는 피해자들의 자생적 공동체를 통해 동병상련의 아픔을 이해하면서 지지, 격려, 공감을 통해 스스로 임파워먼트할 수 있는 능력과 힘을 기르고 있습니다. 생각이 바뀌면 행동이 바뀌고 행동이 바뀌면 운명이 바뀐다는 진리처럼 센터마다 피해자의 긍정적 변화를 위해 다양한 자조모임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는데 그 중에서 특색있는 내용 몇가지를 소개하고자 합니다.

조금은 특별한 자조모임 소개

경북북부센터

독서치유 프로그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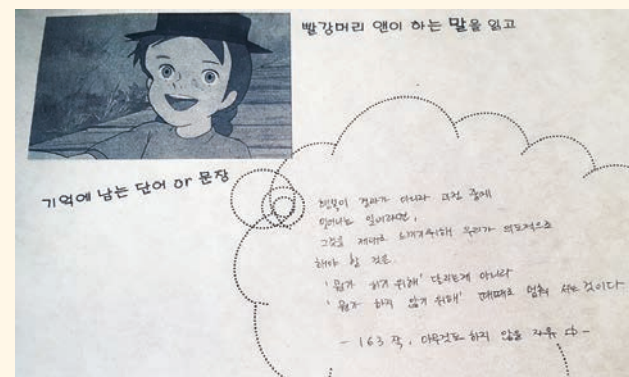
“토닥토닥 따뜻한 위로, 책으로 마음 치유”

경북북부센터는 범죄피해로 인해 심리, 정서적 고통을 받으며 잠 못 이루는 밤을 보내는 피해자를 대상으로 “빨강머리 앤이 하는 말”이라는 책을 통해 “토닥토닥 따뜻한 위로”를 건네며 마음에 남는 문장 적어보기, 편지쓰기, 마음에 드는 명장면 그리기 등의 발문 주제를 제시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자신이 할 수 있는 만큼만 적어보고 그려보고 나누며 마음의 치유를 돕는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누군가의 위로를 필요로 하는 사람들에게 책은 중요한 치료 도구가 될 수 있다는 취지에서 20대의 젊은 피해자에게는 감성에 호소하는 그림으로 그래픽 에세이를 통해 힘든 시간을 위로하여 용기와 힘을 얻게 하였습니다. 또한 50, 60대 피해자에게는 “엄마 어렸을 적엔 이야기 시”(이승은, 하현선)를 통해 가난했지만 따뜻한 지난날을 추억함으로써 우울감을 해소하고 인지 기능을 향상시키는 맞춤형 독서 치료로 정서적 회복을 돕고 있습니다.



biblio-therapy program



인천센터

예술 프로그램을 통한
범죄피해자 심리치유 노력

group art treatment



인천센터에서는 범죄로 인한 외상 후 스트레스 등에 대한 심리적, 정서적 안정을 위해 전문가의 지도로 평소 접하기 어려운 예술 분야의 체험 과정을 통해 피해자 간 공감대 형성을 도모하고 있습니다.

피해자 및 가족이 참여한 프로그램은 예술 치유 분과위원으로 위촉된 한지공예, 원예, 민화, 나전칠기 전문가가 예술적 재능을 기부함으로써 피해자 회복에 지속적 도움을 제공하였습니다. 참가한 피해자와 가족들은 참여 프로그램에 높은 만족감을 느끼고 무엇보다도 바꿀 수 없는 귀한 시간이었다고 입을 모으기도 하였습니다.

한지공예 및 민화, 나전칠기, 공예 프로그램은 전통적인 아름다움과 멋스러운 작품을 통해 응어리진 마음을 치유했으며 원예 체험 프로그램은 자연이 주는 풍성함을 통해 심리적 안정을 추구하는 소중한 기회가 되었습니다.

군산익산센터

팝아트로 꾸민 나

Pop Art



군산익산센터는 2017년에만 10차에 걸쳐 자조모임을 운영하고 있을 정도로 추진이 활성화된 센터로 특히 “팝아트로 꾸민 나”라는 색다른 프로그램을 2016년도부터 진행하고 있습니다.

이 프로그램은 피해자 자신의 얼굴이 스케치된 액자에 자유롭게 색칠을 한 후 자기에게 하고 싶은 간단한 말을 써 넣으면서 내면의 자신을 바라보는 시간을 갖고 자신과 이야기를 나누면서 본인의 심리적 경향을 알게 되는 내용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이 프로그램은 강사가 그려준 밑그림에 물감을 칠해 자신의 얼굴을 완성해 가면서 남이 본 내 얼굴에 대한 느낌, 내가 만들고 싶은 내 얼굴을 비교해 만들어 가면서 내 얼굴에 대한 책임이 나라는 것을 알고 편안한 얼굴로 만들어 나가는 노력을 다짐하는 기회를 갖고 있습니다.

이 프로그램에 참여한 피해자들은 자신에게 주는 희망의 메시지를 쓰면서 자신감을 고취하게 되고 새로운 자신의 모습을 발견했다는 성취감을 느꼈다는 긍정적인 소감과 반응을 보였으며 센터에서는 이 프로그램을 좀 더 개선하고 보완하여 지속적으로 시행할 계획입니다.



		서울
센터명	주소	전화
전국범죄피해자지원연합회	(06590)서울시 서초구 반포대로 157 대검찰청 107호	02-596-1295
한국범죄피해자지원중앙센터	(06594)서울시 서초구 반포대로 158 서울중앙지방검찰청 B110호	02-534-4901
서울동부범죄피해자지원센터	(05856)서울시 송파구 정의로 30 서울동부지방검찰청 102호	02-455-4954
서울남부범죄피해자지원센터	(08088)서울시 양천구 신월로 390 서울남부지방검찰청 312호	02-2645-1301
서울북부범죄피해자지원센터	(01322)서울시 도봉구 마들로 747 서울북부지방검찰청 219호	02-3296-4995
서울서부범죄피해자지원센터	(04207)서울시 마포구 마포대로 174 서울서부지방검찰청 별관 102호	02-3270-4504

		경기 / 인천
센터명	주소	전화
경기북부범죄피해자지원센터	(11616)경기도 의정부시 녹양로 34번길 23 의정부지방검찰청 제1신관 243호	031-820-4678
고양파주범죄피해자지원센터	(10413)경기도 고양시 일산동구 장백로 213 고양지청 414호	031-932-8291
인천범죄피해자지원센터	(22220)인천시 남구 소성로 163번길 25 인천지방검찰청 1125호	032-860-4518
부천김포범죄피해자지원센터	(14602)경기도 부천시 원미구 상일로 127 인천지방검찰청 부천지청 101호	032-329-2580
수원범죄피해자지원센터	(16517)경기도 수원시 영통구 월드컵로 120 수원지방검찰청 143호	031-210-4761
성남광주하남범죄피해자지원센터	(13143)경기도 성남시 수정구 산성대로 451 수원지방검찰청 성남지청 별관 152호	031-715-0090
여주이천양평범죄피해자지원센터	(12638)경기도 여주시 여주읍 현암로 21-11 수원지방검찰청 여주지청 101호	031-885-1188
평택안성범죄피해자지원센터	(17901)경기도 평택시 중앙로 275(비전동 846) 평택시도시공사 內 1층	031-656-2828
안산광명시흥범죄피해자지원센터	(15472)경기도 안산시 단원구 광덕서로 73 수원지방검찰청 안산지청 807호	031-475-3310
안양범죄피해자지원센터	(14054)경기도 안양시 동안구 관평로 212번길 52 수원지검 안양지청 106호	031-387-0050

		강원
센터명	주소	전화
춘천범죄피해자지원센터	(24342)강원도 춘천시 공지로 288 춘천지방검찰청 201호	033-244-0335
강릉범죄피해자지원센터	(25463)강원도 강릉시 동해대로 3288-17 춘천지방검찰청 강릉지청 113호	033-641-4163
원주횡성범죄피해자지원센터	(26478)강원도 원주시 시청로 139(무실동 1798) 춘천지방검찰청 원주지청 107호	033-742-3100
속초범죄피해자지원센터	(24825)강원도 속초시 중앙로 209	033-638-1111
영월범죄피해자지원센터	(26228)강원도 영월군 영월읍 영월향교 1길 34	033-375-9119

		대전 / 충청
센터명	주소	전화
대전범죄피해자지원센터	(35237)대전광역시 서구 둔산중로 78번길 15 대전지방검찰청 209호	042-472-0082
홍성범죄피해자지원센터	(32226)충남 홍성군 홍성읍 법원로 40 대전지방검찰청 홍성지청 318호	041-631-4915
공주청양범죄피해자지원센터	(32568)충청남도 공주시 한적2길 34-13 대전지검 공주지청 102호	041-856-2828
논산부여계룡범죄피해자지원센터	(32930)충남 논산시 강경읍 계백로 99 대전지방검찰청 논산지청 304호	041-745-2030
서산범죄피해자지원센터	(31988)충남 서산시 공림4로 23 대전지방검찰청 서산지청 312호	041-660-4377
천안아산범죄피해자지원센터	(31125)충남 천안시 동남구 청수 14로 67 천안지청 1층(천안)	041-556-9494
	(31580)충남 아산시 시민로 457번길 동우빌딩 5층(아산)	041-533-6090
청주범죄피해자지원센터	(28624)충북 청주시 서원구 산남로 70번길 51 청주지방검찰청 208호	043-288-0141
충주음성범죄피해자지원센터	(27357)충북 충주시 계명대로 101 청주지방검찰청 충주지청 108호	043-856-2526
제천단양범죄피해자지원센터	(27165)충북 제천시 의림대로 179 오화빌딩 2층	043-643-1295
영동옥천범죄피해자지원센터	(29150)충북 영동군 영동읍 영동항간로 77 청주지방검찰청 영동지청 107호	043-742-3800

		대구 / 경북
센터명	주소	전화
대구경북범죄피해자지원센터	(42027)대구광역시 수성구 동대구로 364 대구지방검찰청 2315호	053-740-4440
대구서부범죄피해자지원센터	(42635)대구광역시 달서구 장산남로 40 대구지방검찰청 서부지청 709호	053-573-7400
경북북부범죄피해자지원센터	(36752)경북 안동시 강남로306 대구지방검찰청 안동지청 115호(민원실 안)	054-854-7600
경주범죄피해자지원센터	(38145)경북 경주시 화랑로 89 대구지방검찰청 경주지청 본관 305호	054-773-4595
포항범죄피해자지원센터	(37573)경북 포항시 북구 법원로 181 대구지방검찰청 포항지청 213호	054-276-8112
김천구미범죄피해자지원센터	(39613)경북 김천시 김천로 150 2층(김천)	054-430-9091
	(39371)경북 구미시 산호대로 239 구미시시민복지회관 2층(구미)	054-462-9090
상주문경영천범죄피해자지원센터	(37160)경북 상주시 복천로 17-9 대구지방검찰청 상주지청 109호	054-533-6047
의성군위청송범죄피해자지원센터	(37339)경북 의성군 의성읍 군청길 67 대구지방검찰청 의성지청 209호	054-830-4548
영덕울진영양범죄피해자지원센터	(36427)경북 영덕군 영덕읍 경동로 8335 대구지방검찰청 영덕지청 112호	054-730-4679

		부산 / 울산 / 경남
센터명	주소	전화
부산범죄피해자지원센터	(47510)부산광역시 연제구 법원로 15 부산지방검찰청 117호	051-558-8893
부산동부범죄피해자지원센터	(48053)부산광역시 해운대구 재반로 112번길 19 부산지방검찰청 부산동부지청 417호	051-781-1144
부산서부범죄피해자지원센터	(46726)부산시 강서구 명지국제7로 67 부산서부지청 413호	051-205-4497
울산범죄피해자지원센터	(44643)울산광역시 남구 법대로 45 울산지방검찰청 별관 122호실(울산)	052-265-9004
	(50619)경남 양산시 북안남4길 13-19 1층(양산)	055-366-9011
경남범죄피해자지원센터	(51456)경남 창원시 성산구 창이대로 669 창원지방검찰청 322호	055-286-8286
진주범죄피해자지원센터	(52676)경남 진주시 진양호로 301 창원지방검찰청 진주지청 207호	055-748-1301
통영거제고성범죄피해자지원센터	(53029)경남 통영시 용남면 등달안길 67 창원지방검찰청 통영지청 102호	055-648-6200
밀양창녕범죄피해자지원센터	(50424)경남 밀양시 밀양대로 1993-20 창원지방검찰청 밀양지청 212호	055-356-8272
거창합천함양범죄피해자지원센터	(50129)경남 거창군 거창읍 죽전1길 31 창원지방검찰청 거창지청 별관	055-945-2325
마산합안의령범죄피해자지원센터	(51736)경남 창원시 마산합포구 중앙동로 21 창원지방검찰청 마산지청 402호	055-242-6688

		광주 / 호남
센터명	주소	전화
광주범죄피해자지원센터	(61441)광주광역시 동구 준법로 7-12 광주지방검찰청 209호	062-231-4752
목포범죄피해자지원센터	(58671)전남 목포시 정의로 9 광주지방검찰청 목포지청 1층 108호	061-279-1230
장흥강진범죄피해자지원센터	(59330)전남 장흥군 장흥읍 동교3길 43	061-863-3636
전남동부범죄피해자지원센터	(57932)전남 순천시 왕지로 21 광주지방검찰청 순천지청 526호	061-722-2544
해남완도진도범죄피해자지원센터	(59031)전남 해남군 해남읍 중앙1로 330 광주지방검찰청 해남지청 별관 2층	061-537-1301
전주범죄피해자지원센터	(54889)전북 전주시 덕진구 사평로 25 전주지방검찰청 신관 152호	063-276-8804
군산익산범죄피해자지원센터	(54079)전북 군산시 법원로 70 전주지방검찰청 군산지청 103호	063-452-3012
정읍범죄피해자지원센터	(56172)전북 정읍시 수성6로 27 전주지방검찰청 정읍지청 412호	063-534-8295
남원순창장수범죄피해자지원센터	(55761)전북 남원시 용성로 59 전주지방검찰청 남원지청 111호	063-634-2828

		제주
센터명	주소	전화
제주범죄피해자지원센터	(63223)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 남광복5길 3 제주지방검찰청 507호	064-756-7004



당신의 웃는
내일을 응원합니다

범죄피해자지원센터에서는
누구에게나 일어날 수 있는
범죄피해의 고통을
함께 공감하고 나누고자 합니다.

범죄피해자 구호전화 전국 어디서나 국번없이

1577-1295

